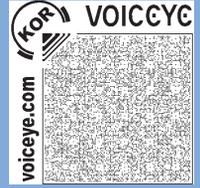


ISSN 2383-9872

밑붙이 되고 붙씨가 되자

2019년 여름



노란들판 저널



(사)노란들판

노들장애인아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표지그림
박소민



* 그림·지원

2009년 6월 4일, 석암 베데스다요양원에서 나온 8명.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2019년 6월 4일
'탈(탈시설)! 탈(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원정대'를 꾸립니다.

★ 석암투쟁 10주년 행사

일 시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시청 ~ 마로니에 공원 / 걸어서 행진
참가비 1만원 (농협 301-0168-5108-11 김포장애인야학)
문의 02-766-9101(명희, 중현)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고병권의 비마이네] 죽음의 설교자들 * 고병권

- 06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투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향해 * 김윤영
- 09 최루액과 보이스피싱 * 서기현
- 13 끝이 보이지 않는 차별의 수풀더미라도 * 이승현
- 16 [육하는 여자]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이동권 * 박세영
- 18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찾기를 위한 점수와의 전쟁 * 조민제
- 22 [장판 찾아슈] 달마는 동쪽으로, 전장연은 세종시로~~ * 수리아
- 25 영화 <Still Life>(스틸라이프) 그리고 BeMinor(비마이네) * 장선정
- 27 황유미님 12주기를 함께하러 가는 길 * 한명희
- 30 [형님 한 말씀] 이종각 이사장님께 드립니다 * 김명학
- 32 호식형과 함께 했던 노들야학 * 이진희

-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걸고 듣기를 포기하지 않기 * 김수연
- 37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작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 이종운
- 40 [노들아 안녕] 한글 대학 배우 공부 열심히 * 박성숙
- 41 [노들아 안녕] 타인의 노들야학 * 정중현
- 43 [노들아 안녕] 다시 시작하는 일 * 김은순
- 45 [교단일기] 권익옹호반 소개합니다 * 김필순
- 48新书推荐_노들담복지관을 찾아서 * 정민구
- 52 잃어버린 기억과 남은 기억 * 김진수
- 54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1] 활동지원의 가치는 이용자의 인권과 함께 성장하는 것 * 연용분
- 55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2]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김태열

- 57 아침 쓰레기를 줘대! * 배승천
- 61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 아침
- 64 우리는 식행사 * 노란들판
- 67 I need 구문 박선생님! * 조아라
- 70 [노들 책꽂이] 만일 이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 장혜영
- 73 [동네 한 바퀴] 노동건강연대 그리고 정우준 * 김유미

- 77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인터뷰_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 한명희
-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낫살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9호 2019.05
만든곳 (사)노란들판·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간'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서기현 정우영 조상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김유미 <노들바람> 편집인

1. 얼마 전, 야학 4층 들다방에서 보았던 낯선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났을까. 메시지로 울리는 휴대폰 속에서 그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부고. 2019년 5월 13일, 고인이 된 이창선. 향년 35세. 2017년 12월 탈시설한 그는 이음장애인지립생활센터 자립주택에 살면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탈시설 당사자 모임에 참여하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에 입학해 공부하고, 연극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저는 그가 누린 자유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낍니다. 저는 불평등한 위치, 도약이 어려운 위치에 갇힌 이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나의 위치를 봅니다. 비장애인인 저도 뭐 그닥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바라는 자유와 비장애인인 내가 바라는 자유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노들이라는 공간은 나의 위치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지원해 줄 활동지원사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나도, 나도, 시설이라는 낯선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2. 2009년 6월 4일, 마로니에 공원 앞에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활동가들이 트럭에 실린 짐들을 공원 구석으로 옮겨왔습니다. 짐을 내리는 데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서랍장, 종이 박스, 이불 보따리 몇 개, 벽시계 같은 게 기억 납니다.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에 살던 8명의 짐이었고, 8명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었습니다. 8명은 한 날 한 시에 시설을 퇴소하고, 마로니에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집단 퇴소와 동시에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사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원제도들이 충분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정도로 매순간 싸우며, 마이너스(-)에서 영(0)의 자리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구호입니다. '마로니에 8인'의 투쟁 이후, 전국 각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이창선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집, 생계급여, 활동지원시간. 그리고 역시나 부족했을 선택의 기회들, 관계의 경험들, 자신을 위한 시간들. 변주로 가득한 생의 시간,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들. 앞으로도 이것들 사이에서 없었던 삶을, 새로운 자유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겠지요.

[고병권의 비마이너]

죽음의 설교자들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지난 3월 28일, 법원은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졸라 죽인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다. 자식을 죽인 어머니에게 고작 집행유예라니. 그런데 그 아들이 중증장애인이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피살자에서 살인자로 옮겨간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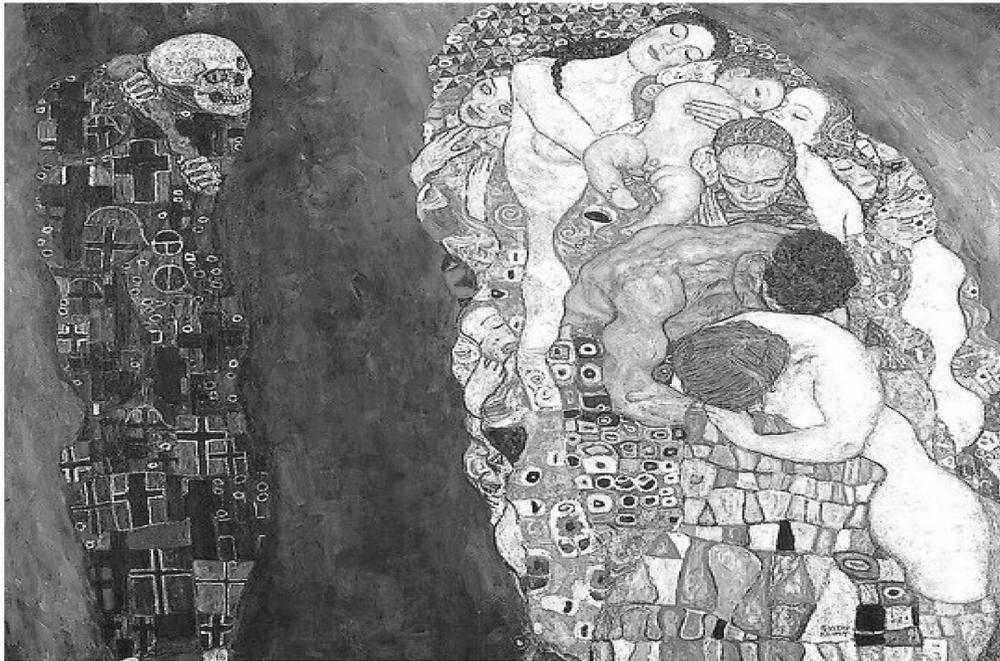
실제로 사건 내막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짐작하는 '오죽했으면'이 맞다. 죽은 아들은 41세였는데 세 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다. 초보적인 수준의 언어소통만 가능했으며 나이 들어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20세가 넘어서는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매번 소란을 일으켜 입원 연장이 거부되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도 아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주먹으로 벽을 두드려서 진정제를 투약했다고 한다. 일흔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는 아들 상태가 호전

될 기미도 없고 자신에게 더 이상 돌볼 기력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함께 죽자는 심정으로 잠든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자기 입에도 신경안정제를 잔뜩 집어넣었다.

세상에 돌도 없을 것 같은 이 비극적 사건은 최근 보도된 것만 해도 여럿이다. 2015년에는 서울에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쳐 죽였고, 2016년에는 전주의 어느 아버지, 여주의 어느 어머니가 각각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이번 비극은 장소와 인물만 다를 뿐 똑같은 사건이다.

동일한 유형의 살인이 이렇게 단기간 반복되었다면 보통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을 것이다. 게다가 살인자가 모두 피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살해 후 한결같이 자살을 시도했다면 엑소시즘 영화처럼 마귀라도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연쇄살인범을 쫓는 경찰도 없고 퇴마의식을 거



구스타브 클림트
(G. Klimt)의 「죽음과 삶」
(death and life)

행하는 사제도 없다. 그 대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뗏목을 단다. “어머님, 일면식도 없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추천순위 1위 뗏목이고 다음이 2위 뗏목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부모도 자식도 고생 많으셨네요. 다음 생이 있다면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사시길.”

그런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가득한 뗏목들이 우리 야학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2016년 어느 겨울날 수업 준비를 하며 중증장애인 학생과 그 해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공포와 분

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며 그는 자기 목이 조이는 듯 오들오들 떨었다. 뗏목을 단 사람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이를 죽여야 하는 사람의 비극성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학생은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의 공포를 떠올렸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단 뗏목들을 중증장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살인면허로 받아들인다. 부모에게 건네는 ‘당신은 죽일 만했습니다’는 위로가 장애인에게는 ‘당신은 죽을 만 합니다’로 읽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적이 있다. 학생들은 여기

실린 ‘죽음의 설교자들’이라는 글에 크게 공감했다. ‘죽음의 설교자들’이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직접 말하는 건 아니다. 그저 ‘이 세계’에서의 우리 삶이 죄와 고통, 불행으로 가득하다고 떠들어대며 천국은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에,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다.

차라투스트라가 든 예는 이렇다. 아픈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서 뭐할까’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 할까, 불행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들. ‘네 처지를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이면 삶을 옥죄는 끈이 조금은 느슨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차라투스트라는 이들을 ‘존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편협한 인간들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의 병든 시각을 아무에게나 투영해서 타인의 삶의 의지를 꺾는 인간들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자 한 학생이 ‘엄마’라고 답했다. 그 ‘엄마’는 내가 아는 한 수십 년을 그에게 헌신해 온 사람이다.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 사연을 알 수 없으나, 죽음의 설교는 연민의 눈빛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죽음의 설교자로 지목된 그 ‘엄마’도 실은 매일 죽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불행한 아이를 낳았으니 처지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다음 생에는 부디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보면 이 헌신적인 ‘엄마’도 언제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연쇄살인범이든 마귀든 진짜 죽음의 설교자들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

는 이 세계가 진짜 그들의 설교대로 되고 말 것이다. 법원은 지난 달 선고문에 진범의 옷자락을 슬쩍 들추었다. 법률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선언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로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로는 함께 사는 세상인데 실제로는 죽으라는 세상이다. 국가와 사회 모두가 장애인을 가두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살려는 사람을 죽이려 드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죽음의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고 싶으면 너나 죽으라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투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향해

송파 세모녀 5주기를 맞아

김윤영

빈곤이 아니라 빈민을 철폐하는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며 가난한 이들의 연대가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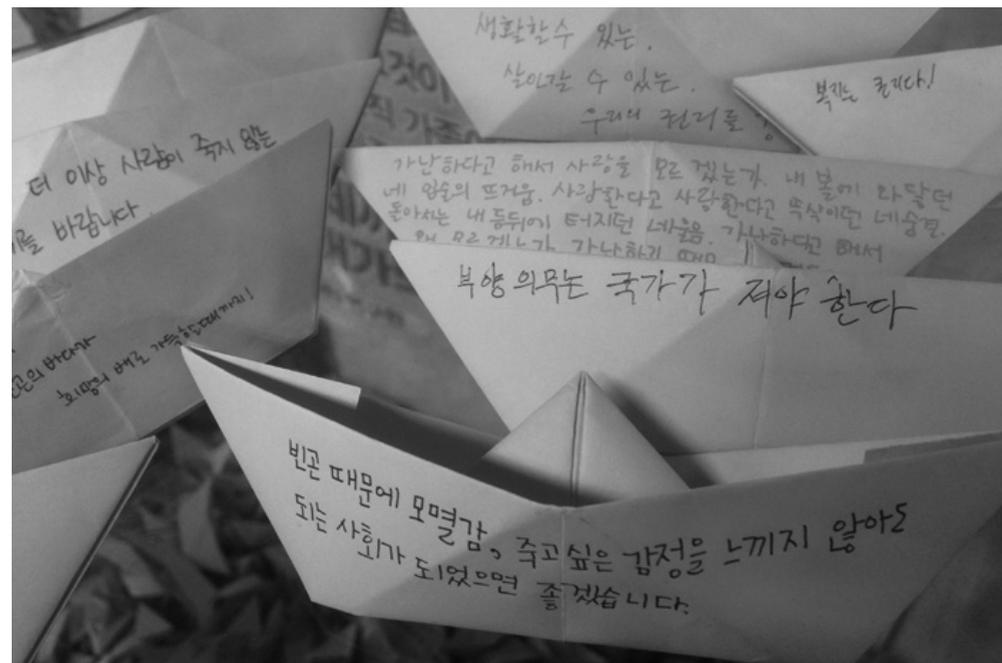
“10년 전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뒤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금융정보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노숙도 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수급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몸도 나빠지지 않고 일자리도 얻고 부모님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픉니다.”

- 송파 세모녀 추모제 참가자 박00

지난 2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송파 세모녀 5주기 추모제에서 홀리스야학 학생 박00님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가난으로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지냈던 그는 수급신청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노숙을 전전하던 어느 날, 가족관계 증명서에 홀로 남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제 부모님께 말

씀 드리지 않고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었다.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5년이 흘렀다.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지만 올 1월에도 서울 망우동에서



가난한 모녀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세상에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살던 가난한 이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발견된다. 생활고로 인한 죽음, 고독사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투쟁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분홍종이배 접기 운동’을 시작했다. 빈곤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보트를 띄우는 ‘분홍종이배’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닫힌 문 안에서 각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는 호소였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여전히 또 다른 송파 세모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투쟁이다.

송파 세모녀 5주기 추모제를 진행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3월 1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3·1운동 기념식장에는 ‘함께 만든 백년,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거대한 구호가 나부끼고 있었다. 대한 독립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부랑인과 장애인을 시설에 가둔 100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해방은 없었던 지난 100년이었다. 청와대로 행진하던 우리의 발걸음은 3·1절 대회장 앞에서 멈췄다. 우리 역시 100년을 함께 살아왔으며 한

번도 주인인 적 없었노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

지난 4월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발표될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광화문농성장에서 이뤄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장관의 면담에서도 밝혔던 내용이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다시 한 번 약속 이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농성에 돌입했던 2012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조계사 앞마당에 농성장을 꾸렸던 2010년, 최옥란열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투쟁했던 2001년으로부터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 시작된 변화다.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옹벽이 우리의 투쟁을 통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로 만날 새로운 세상

부양의무자기준은 박00님에게서 건강도, 생전에 부모님을 빌 기회도 빼앗았다. 여전히 곳곳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장애 여성이 있고, 자신의 소득 때문에 가족들의 수급이 탈락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들

의 가슴에 드리워진 멍에와 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다.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1842일의 광화문 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쳤다. 과연 세상의 일상이 바뀌는 날이 오고 있는 것일까?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이 계속된다면 그럴 것이다. 우리의 승리가 변화시킬 세상의 풍경을 상상하자. 송파 세모녀를 기억하며 끝까지 나아가자.

최루액과 보이스피싱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7년동안 집안에서 거지꼴로 살다 IMF때 반강제 자립(자립생활 아님 ㅋㅋ).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15여년. 현재 어느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놀고 먹으며.. 오로지 주동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어느 때와 같이 나는 집회를 하러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 이동하는 동안 지루하여 꾸벅꾸벅 졸며 비몽사몽 있을 때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깜짝 놀라 받아보니 역사나 모르는 사람이었다.

"예. 전장연의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예전에 최루액 관련 소송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 배상이 결정돼서요. 선생님에게 100여만원이 지급될 거예요. 계좌번호와 통장 사본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이동중이어서요. 4시 이후에 연락드리면 안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꽤 해맑은 전화 목소리라서 그런지 아니면

황당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잠시 동안 멍했다. 최루액 관련 소송이라... 그게 언제적 얘기였지? 아... 2014년! 세월호 참사... 고 송국현 동지... 그리고 최루액.....

2014년은 꽤 암울했던 기억이 있다. 그 해 4월은 전 국민적인 비극,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고 송국현 동지가 화재로 입원해있다가 돌아가셨다. 어느 때보다도 엄혹한 분위기에서 420투쟁은 준비되고 있었다.

그 당시 이전에도 이동권과 관련된 투쟁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유독 더딘 영역이 있었으니, 고속, 시외 버스다. 2014년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시외 버스가 단 한 대도, 정말 단 한 대도 없었다. (2019년 올해에 들어서야 겨우 10대로 시범운영의 *계획*이 있을 뿐이다. ㅠㅠ 징한 놈(?)들..)

그나마 서울 시내에는 지하철과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시외로 이동할 때는 KTX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열차 1대(보통 8~10량)에 전동휠체어 2대밖에 못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KTX역이 대도시 위주로 있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지방에서의 이동은 또다른 문제이다. 지방은 지하철은 커녕, 저상버스, 장콜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20공투단(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는 전국 각지 구석구석으로 갈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에 주목했다. 이미 2005년에 제정된 이동보장법에 의해 고속, 시외 버스에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버스업체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2014년 당시까지 (그리고 2019년인 지금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고속, 시외 버스는 없었다. 그래서 그즈음부터 설, 추석 때마다 그리고 420 때마다 고속버스 타기 투쟁을 버스터미널에서 진행했다.

2014년 4월 20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리는 350만원어치의 버스표를 미리 사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버스를 타겠다고 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다. 버스로 접근도 물론 못하게 막았고, 이상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경찰들의 바리케이트 뒤로 이상한 등짐 같은 것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물총도 아닌 농약뿌리는 기계 비슷한 것이 들려있었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조금 격해지자 그 뒤에 있던 경찰들은 바리케이트 너머로 무언가 물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 그냥 물인 줄 알고 (소규모 물대포 정도로 생각하며) 바리케이

트를 다시 밀려는 순간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아아악 내 눈, 내 눈...!"
"저 새끼들 최루액 쓰고 있어...!"

순식간에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다급하게 물을 찾는 사람. 시위대에서 빠져 멍하니 눈물콧물을 흘리는 사람. 이 상황에 더 분노하여 경찰을 들이받는 사람... 욕설과 비명, 오열과 분노,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어느 순간 최루액은 내 상반신에도 튀어 오른 손이 화끈거리고 있었다. 황급히 물로 닦았지만 별걸게 부어오른 오른손은 진정되기까지 2,3일이 걸렸다.

최루액 분사 사건은 이후, 파장이 꽤 컸다. 거의 모든 장애인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고, 지상파 뉴스에도 나왔다. 며칠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420공투단에 담당자를 보내 공문을 전하며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끝내 그 사과를 거부되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진행이 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버스를 타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막은 것,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요사태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최루액을 분사한 것, 얼굴에 정조준하여 최루액을 분사한 것 등은 명백하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어겼고 그로 인해 집회참여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국가를 상



최루액을 쓰는 경찰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물론 나도 그 혼란했던 기억과 잊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긴 재판 끝에 지난 2019년 1월 16일 2심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최루액 분사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33인의 소송인들은 100만원(실제로는 5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서 13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주장했던 버스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 350만원어치의 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다 인정을 했더라면 배상액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아까비... ㅋㅋ) 솔직히 고백하자면 소송에는 참

여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배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되었다.

내 입장에서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통장 사본을 달라 하니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검사라고 하는 사람까지 전화로 그런 정보를 달라하니...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대담하게 '이거 의심되는데 검사님 신분을 어떻게 믿죠?'라고 묻자 '하하... 이해합니다. ○○○변호사님이 대리인이시니까 확인해보세요..'라고 했다. 나는 즉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확인을 했고 기사까지 검색을 하고서야 안심을 했다.



2014. 4. 20.
고속버스터미널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여 생긴 에피소드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등골이 오싹했다. 나름 여기저기 확인해서 안 당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ㅋㅋ (그래도 또 조심 또 조심...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ㅠㅠ)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쓸까하는 고민도 잠시.. 전장연에서는 문자로 발빠른 제안을 했다.

"강제는 절대 아니지만 〇〇〇원은 법률 대리 비용, 〇〇〇원은 전장연 후원금, 〇〇〇원은 개인 수익금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부끄러웠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개인수익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했다. 그 개인수익금은 잘 썼다. 나머지 금액도 변호사분이나 전장연에서 잘 썼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는 겪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아쉬운대로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판사, 검사 분들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전 정권에서 싸놓은 똥(?)을 현 정권에서 치우는 꼴이지만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높이 살 만하다. 그래도 더 나아져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차별의 수풀더미라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먼저 헤쳐나간다면 얼마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길이 생깁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2007~201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활동.
2017~현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우리에게 승강기 설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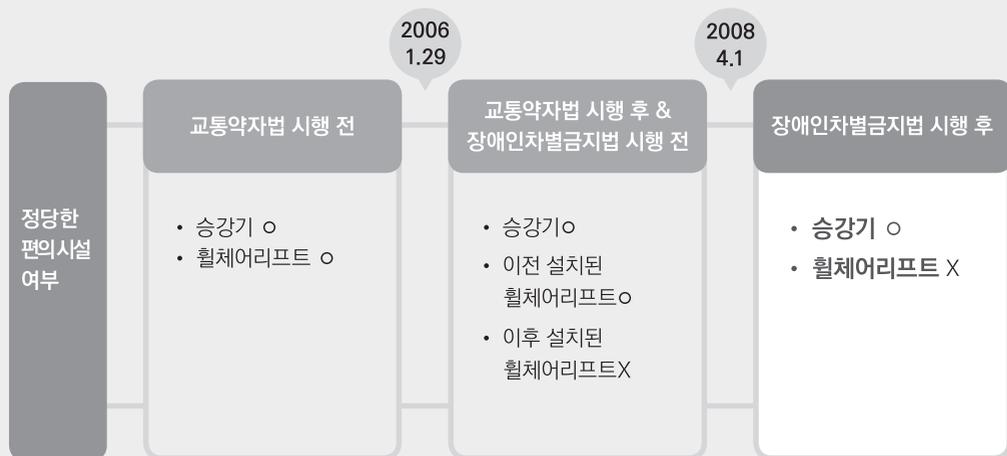
2017년 리프트를 이용하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시작된 소송이 어느덧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결과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우리 변호인과 원고(이형숙)가 재판부에게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른 법들과 달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에는 '승강기'만이 정당한 편의시설입니다!



리프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비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계단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어느 것으로 이동할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 오로지 리프트만 있다면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이동수단이기도 한 것이며 더욱이 그 이동수단인 리프트가 안전하지 않기에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이후 끊임없이 요구하였던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문제가 또다시 2017년 신길역 추락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리프트가 장애인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살인시설이기에 하루빨리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쟁해 왔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는 10여년 전 이야기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돈만 아는 저질' 기획재정부와 똑같이 "돈"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쟁과정에서 신길역 등 몇 곳에 엘리베이터(경사형 승강기) 공사가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일부이기에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살인시설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은 맞긴 한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나?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라는 물음표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지난 1월 재판방청한 노들·성동센터 회원들

여전히 많은 재판에서 차별은 맞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이는 여전히 이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로 굴러가고 있기에 최후 보루라는 보수적인 법원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길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결성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호입니다. 이번 리프트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재판 때마다 직접 참석하여 재판을 지켜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차별의 이야기를 담아 탄원서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노력들과 실천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육하는 여자]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이동권

박세영

센터판 활동가 세O. 센터판에서 가끔(?) 육하면서...
 맘 내키는대로(?) 활동하고 다니는 나를 정신없는 척 하는
 육하는 여자 박세영 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육하는 일이 생겨버렸다. 어째 육~해야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착하게 좀 살아보려는 나...또 육하고 있다.(누누이 말하지만 쓸데없는 일에는 육하지 않는다요~!)

내가 속해 있는 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각종 투쟁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요구도 하고 농성도 하고 등등.....그래...한다...그래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도 생기고...저상버스도 생기고...미약하지만 거리의 턱도 없어지.....(이건 아직도.....ㅠ)

암튼 다 치우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 그래 저상버스? 만들어 놓으면 뭐냐고 ~~!!!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하잖아 ~!!! 아니 왜!! 도대체 왜 저상버스 운행한다는 기사가 (아니 기사님이~!! 난 예의바른 사람이니까...ㅎㅎ) 리프트 작동법도 모르고 버스가

고장 났는지 뭐 한지도 모르고 그 뭐냐...그 장애인 표시 딱~하니 붙여놓고 버젓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다니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다들 육하실 꺼여요...

한날~휠체어 장애인 3분과 광화문을 가려고 10X번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더랬다. 우리 사무실 근처 종X 경찰서 정류장에서...그래 전광판에 보이는 10X번 저상버스는 많다. 수시로 있다. 드디어 3분의 기다림 끝에 10X번 저상버스가 왔고...휠체어 탄다고 뒷문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했다. 문이 열리고...내렸다...리프트를...나오다가 만다...턱이 안 없어진다...휠체어 어찌 타라고...

기사님 왁~!! 이게 다 나온 거란다.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아니 그게 손으로 잡아뺐다고 나오냐고~!!!!!!

그래 어찌어찌해서 다 나오긴 했다. 우여곡절 끝에 휠체어 장애인 버스를 탔고 또 기사님 왁, 휠체어 분들이 이용을 잘 안 해서 자기가 미숙했던 점 이해해달란다. 그래...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이러다 성인군자가 되지 않을까...? 예휴...) 근데...있잖아...작동법을 모르면 저상버스를 왜 운행하냐고.....아님 저상버스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받던지~!!!! 휠체어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용할 꺼라고 생각해서 저상버스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런 거까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예휴...암튼 이 일이 있던 며칠 후 (휠체어 저상버스 이용 많이 하라매) 다시 저상버스타탈 일이 생겼다. 또 종X 경찰서 정류장에서 10X을 기다렸다. 왔다. 첫 번째 버스...시간이 없어서 못 태운덴다. 이런 뭇 같은...

두 번째 버스 왔다...리프트? 또 나오다 만다...리프트 2~3번 왔다갔다 하더니 안 된다고 간다. 그냥 간다. 세 번째 버스 왔다. 기사님 왁...버스가 오래된 버스라 작동이 잘 안 된단다. 10X번 버스는 다 그런 듯...결국엔 다른 번호의 버스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환승해서 도착지에 가야 했고 역시나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여기서 또 팩트를 말하자면~!!!!!! 아니 오래된 버스라도 장애인 마크를 딱 하니 붙이고 다니려면 버스를 고치던가 점검을 하던가 해서 리프트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오래된 버스는 무슨 그 상태로 놔두는 거야? 쪽~??? 언제 바뀌??? 오래됐다는 이유로 뭘 일(예)를 들

어 버스가 부식돼서 터지는 거...) 터지면? 그래서 사람 죽으면??? 아니...지하철역(그 외에도...) 엘리베이터도 그래...특하면 수리 중 이래....그래...뭐 수리 중이라고 써있으면 그동안에 신나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던 어르신들...(노X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그놈의 동X예의X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찾아 잘만 가시겠지....그러면~!!!

휠체어는??? 휠체어는 어디로 가야 해?? 멀쩡한 엘리베이터 있는 지하철역 찾아가야 한다는 거지?? 찾아가는데 또 리프트만 있으면 살인기계라 불리는 리프트 타야 하는 거고? 아니...장애인 편의시설 어쩌구 한다는 거...생각해주는 거 같아 고맙(?)긴 한데... 할라면 제대로 하시라고들.....괜히 위하는 척 하지 마시구요들...

생각을 해봐라....니네들은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성인군자가 돼가면서 이 사회를 돌아다닐 수 있겠냐???

쓰다보니 흥분해서 반말 존댓말 섞어 나온 거 같은데...뭐...그러려니 하시고....이건...내 스타...일이라 생각해주시면...헤헛~!!!!!!! (그래도 이번에 육은 안했다요....ㅋㅋㅋ)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찾기를 위한 점수와의 전쟁

조민제

스물 셋에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후 서른여섯인 지금까지 장판(장애인운동판)에서 현존하는 사람. 다른 결이지만 박경석 교장 쌤의 일침동체론(일이 곧 침이다)을 본의 아니게 실현 중이다. 얼마 전 420투쟁으로 서울에 갔다가 허리가 나가서 슬퍼하고 있다

나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도 대구대학교를 다녔으며, 현재 활동도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다. 2009년 울산에서 장애인생존권쟁취를 위한 전국 집회 중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서 두 달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면, 대구는 정말 말 그대로 내 삶의 터전인 곳이다.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참으로 많다. 보수의 성지, 시벌건 동네(원래는 시퍼렸는데 빨간색이 보수를 상징하는 컬러가 된 이후 '시벌건'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대프리카, 청년 유출이 가장 많은 대도시, 고담 대구 등.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름에는 기록적인 더위를 선사하며, 각종 안전 관련 참사가 많았던 이곳에서 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운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운동을 결심한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배들이 중증장애인이었고, 그들이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하겠다며 2006년 대구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학생 때부터 엄청 멋지고 존경스럽던 양반들이 정작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은, 활동보조가 없어서 밥을 굶고 화장실을 못가고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지역공동체의 당사자 활동가들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을 하자고 할 때 그 제안을 덩석 받았고, 대구시청 앞에서 43일 동안 신나게 함께 살며 싸우다 보니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었던지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장애인활동보조 제도화'를 외치고 투쟁했던 2006년,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은 어느덧 2019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놈의 '활동보조'를 끊임없이 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노들바람』 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활동보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벌인 점수와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잠시 2018년 가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때 대구에서는 대구시장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152일간 시청 앞 농성을 했다. 당시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는데, 짧게 요약하여 말하면, 1,150명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살아가는 대구시립희망원이라는 시설에 3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가 난무했다. 정말 백세에 싸워서 2018년 12월까지 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약속받았다. 그래서 2018년 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탈시설 의향을 확인했는데, 절반 정도는 본인이 원하거나 가족의 의향에 의해 다른 시설로 이주 조치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중 조사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명확한 답을 못했고 연고가 전혀 없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9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대구시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계획했고, 우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부터 시작하여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사회로 자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 대구시와 활동보조 월 200시간 추가 지원, 자립주

택 제공, 낮 시간 주간센터 서비스 제공 등에 합의하고 일 년 동안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결정되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진행된 '희망원 최종증 발달장애인 자립시범사업'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활동가들의 눈은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이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현행의 활동보조 인종조사표는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도저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등급 4등급 중 잘 받아야 2등급 정도가 나온다. 2등급을 받으면 하루에 3시간 정도의 활동보조 시간을 받을 수 있다.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3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되지 않고,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발달장애인에게 등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신체장애인에 비해 움직임이 많으니까. 발달장애인의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면 점수가 안 나온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지랄 맞은' 점수체계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기존의 절차대로 서비스를 신청해서 통상적인 조사를 거쳐 점수를 받으면, 활동보조 시간은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안될 듯했다. 시에서 제공하는 추가 시간을 합치더라도 하루에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대적인 압박을 진행하게 된다. 1차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희망원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인권 유린과 비리 사건을 브리핑했고, 이 분들이 지역사회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어필했다. 그리고 대구시의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점수가 425점을 무조건 넘어야한다고 어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우리의 이러한 절박함에 대해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기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9명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개별 면담 및 관찰기록을 종합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센터, 대구시립희망원이 공동으로 별도의 지원기관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들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인정조사표에 따라 문항 당 받아야 하는 점수를 기재하고,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의 의견서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지만, 문항마다 이분들이 받아야 할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당위성을 지닌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이 매일 1~2회 이상 공단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어필했고, 면담 조사를 진행할 때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관계자 5~6명이 동석하여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을 설명했다. 그 결과 440점 이상 6명, 435점 2명, 425점 1명이라는, 발달장애를 주장대로 가진 이들에게는 나오기 정말 힘든 점수를 받아냈다. 대구시 기준에 따라 이분들은 활동보조 24시간 대상에 포함되었다. 희망원이라는 특수성과 사안의 심각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긴 하나,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인정점수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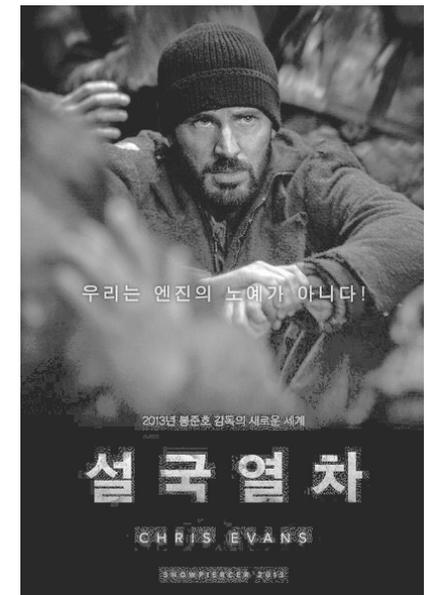
우리는 이제 그동안 활동보조 시간이 적어 씻지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외출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을 만나 이에 대한 활동보조 등급변경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법상 의의신청 기간이 지난 활동보조 이용자는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활동보조가 더 필요해 신청하는 등급변경에서 의사소견서만이 근거가 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없는 경우 '기관의견서'를 내는 것도 인정하라고 구청에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최근 14명에 대한 활동보조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재조사를 신청한 14명 중 13명은 탈시설 장애인이며, 8명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는 열심히 공단을 만나고, 연락을 하고, 조사를 지원하며 이렇게 점수와의 전쟁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점수에 따라 삶이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당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우리는 점수와의 전쟁 중

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서비스 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일. 이것이 현재 활동보조 관련 투쟁을 하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싸웠다. 이제 더 이상 점수 때문에 빌고, 울고, 싸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조사원에게 장애의 중함을 증명해가며 구걸하듯 설득해야 하는가. 나에게 서비스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상 언제쯤 올까?



〈설국열차〉 포스터

활동보조 재심사를 지원하며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꼬리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을 박탈당한 채 가까스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그 곳을 탈출해서 결국 열차라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말이다. 이제 꼬리칸을 탈출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활동보조 인정점수 체계라는 열차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장판 핫이슈]

달마는 동쪽으로, 전장연은 세종시로~~

수리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차별에 침묵하는 자들의 카르텔을 깨고 싶어 씩씩이 팽과리를 치고 있어요. 주로 입으로 쳐서 입병이 자주 나오. 비타민이 넘치면 제게도 나누어주오~

2019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보내고 피곤에 지친 동지들이 쉬는 동안, 잠깐 대항로 사무실에 나와 앉아 지난 326세종투쟁에 대한 글을 씁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지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의 1박2일 투쟁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우리는 왜 광화문광장도, 청와대 앞도, 국회 앞도 아닌 세종시 정부청사까지 가야했을까요? 글의 제목에서처럼 2019년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는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은 최선을 다해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르는 예산은 모조리 잘려나갔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

계적으로 폐지되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OECD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유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뿐이며, 따라서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 '가짜' 폐지일 뿐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31년 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기획재정부가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8조원) 규모의 확대를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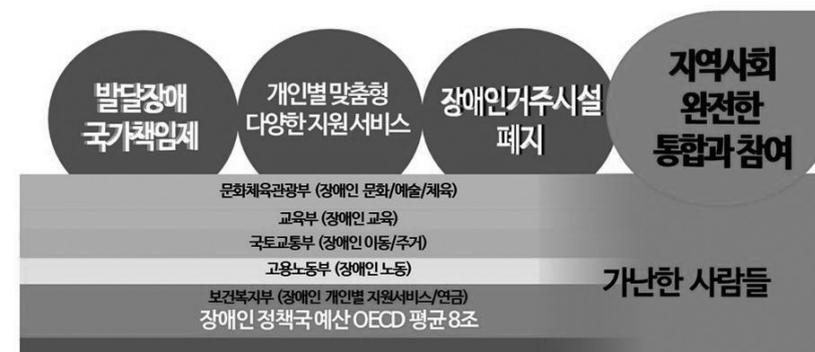
며,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세종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농성과는 달리 세종에서의 농성은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서울의 많은 동지들이 세종시로 이동하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서울에서 기재부 앞까지 리프트버스를 렌트하기로 했고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탑승자에게 요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탑승하고 기재부 앞에 시간 맞춰 도착해야 했기에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후 많은 동지들은 이어서 화장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인근 상가들에 있는 화장실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 시위대인 우리는 어떤 청사의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경찰 측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대로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밤새 노숙을 해야 하는 동지들을 위해 기재부앞 도로에 50동의 천막을 펼쳤습니다.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마치고 저녁 문화제에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842일 광화문 농성 이후에도, 우리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많은 투쟁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앞 예산투쟁과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기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쪽에서 일하던 공무원은 보직 변경으로 인사 이동되면서 후임에게 "절대로 전장연과 말도 섞지 마라"는 얘기를 했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전국 곳곳에서 세종시에 와서 장애인이 최소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 예산을 확보해 달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요 정책 요구





2019년 420장애인차별
철폐 투쟁_세종시

라는 얘기 듣기는 고사하고, 세종시에 있는 동안 “낙서”했던 장소를 “청소”하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투쟁은 세종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 수원에서, 부산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농성 투쟁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쉽게 관철된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장애인이 차별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차츰차츰 바꿔 나갔기에 우리는 참을성 있게 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종시부터 시작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후 2019년 투쟁도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영화 <Still Life>(스틸라이프) 그리고 BeMinor(비마이너)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1.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무연고 사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한 적이 있다.

그 걱정은 내가 가진 걱정의 총량에서 순서를 매겼을 때 늘 상위에 있는 것들에 밀려 깊게, 오래 시간을 끌지는 못 했지만 늘 있었고 지금도 있다. 혹 무슨 걱정을 그리 하느냐 궁금해 할까봐 상위 몇 개를 말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급사할 경우 ② 아이들이 어린데 중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치료비로 그나마 별로 있지도 않은 재산(전세금?)을 탕진하게 될 경우 ③ 아이들이 수학여행으로 배를 타거나, 보일러가 고장 난 펜션에 묵거나, 지붕이 무너질지 모르는 곳으로 캠프를 갈 경우 등]

지금울 사는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단어는 온몸에 착 붙어 있는 ‘피로’나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는 ‘허기’처럼 그냥 가깝다. 그 장르와 계열 또한 무척 다양해서 어느 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 퍼레이드에 밤잠을 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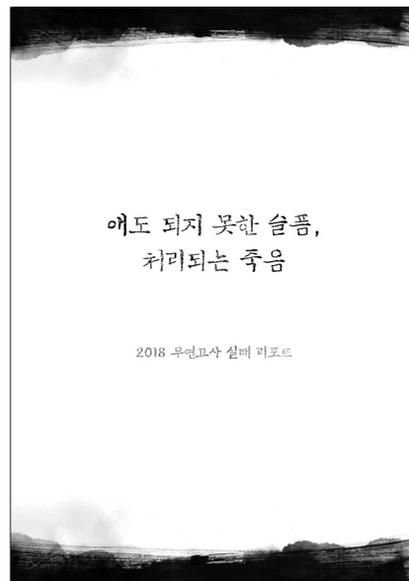
영화 <Still Life>(스틸라이프)를 보기 전 나의 불안지수는 매일이 빨강이었다. 어느 밤은, 자다 일어나서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자는 아이들 코에서 나오는 숨소리를 듣고 주변의 공기와 사물들을 일제히 의심했다 풀었다 하며 새벽을 보냈다. 나만 그랬을까? (아니었다는데 오른 손(툼 끝)을 걸어 보겠다) 영화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어느 잠 못 드는 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이 친근한 분들은 꼭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어느 부분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함께 흘러가는구나 하는 동류의 느낌, 그리고 세상에 인간의 마음과 삶을 표현해 주는 예술이 있어서 고맙고, 그것을

얼마간이라도 알아듣겠는 내가 다행스럽고, 온통 붉그죽죽했던 불안 지수가 주황 정도로 내려가는 안도의 느낌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다.

2.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님이 인쇄물 견적을 의뢰할 때만 해도 이 건은 그저 일이었다. 규격은 미정이고, 원고의 양은 정확하지 않았으며, 종이의 사양이나 이미지의 개수와 인쇄수량 등을 예산 안에서 맞춰야한다 정도의 생각 속에, '비마이너의 재정이 괜찮지 않을 텐데.' 라는 짐작이 있었을 뿐이었다.

확정 원고가 들어오고 편집을 시작할 때에는 약간 신경 쓰이는 일로 바뀌긴 했어도 제작이 늘어져서 420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조율을 하는 게 중요했고 청구가를 조금 낮추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생각에서 나와 나의 일(책)은 같지 않았었다. 막판에 배송에 차질이 생겨 킷서비스 기사님이 노발대발 하는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눔과 나눔'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을 뿐이었달까.

표지가 아쉬웠다. 그것은 원고나 편집디자인에 있지 않고 내 탓이었다. 종이는 조금 더 두꺼웠어야 했고 후가공을 더 고려했어야 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 원고를 더 일찍 꼼꼼하게 읽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너무 컸다. 조금 더 방법을 찾지 않았던 일에 대한 나의 관성과 방심이 아쉽고, 건드리면 아플까봐 원고 읽기를 미루면서 피했던 망설임의 시간이 아쉽고, 이토록 좋은 글들을 솔하게 지나쳐 온 나의 흐린 시야가 아쉬웠다.

이 책 안에, 잠 못 드는 밤을 통과하던 내가 있고, 영화 스틸라이프의 존 메이와 등장 인물들이 있고 오늘과 지금을 사는 우리가 외롭게 존재한다는 걸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면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 더 온화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면서, 읽던 책을 덮은 채 오래 앉아서, 허허벌판을 꾸준히 지켜 온 [나눔과 나눔]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글을 써 준 [비마이너]에게 마음을 다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애도 되지 못한 슬픔, 처리되는 죽음-2018 무연고사 실태 리포트'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덧붙임 1. 본인이 편집디자인을 하고도 420 행사에 참여해 돈을 내고 책을 구입한 디자이너 '진실로'에게 고맙다고 말할 기회를 지나쳤다.

덧붙임 2.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제작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이다.

황유미님 12주기를 함께하러 가는 길

한명희

노들아학 명희입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1023일 농성장을 마쳤던
작년 여름과

그 농성장들을
밤을 기억하며
마음을 옮깁니다.

강남역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더라. 반올림 농성이 1023일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 이후부터 그곳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공간은 때론 누군가와 함께 외쳤던 구호들이 가득 차 있다. 그 계절, 함께 거리에서 먹었던 김밥 한 줄도, 집에 가는 길 잡았던 술자리 한잔도 더듬거리니 기억이 났다.

우리도 광화문농성장 지하역사에서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로 농성을 3년째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당사자분이 노들야학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오셨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시각장애가 점점 진행 중이었고 집에서 나와 어딘가를 이동하기에도 부족한 활동 지원 시간으로 인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다고. 사실 노들야학에서 시청각 장애에 대한 학생 지원은 전체 장애 유형별의 교재교구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분위기 등으로 어렵다. 우린 서로의 답답함을 토로했고 무언가의 관계로서라도 진척이 필요했다. 그때 마침 반올림은 농성을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농성장에 가보고 싶어졌다. 학생들 몇 명과 함께 가서 서로의 억울함을 사무치게 뱉어냈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친하게 해준 거 같다. 무엇인가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냥, 연대라고 한다면 연대일 거고. 그 날 만났던 이종란 샘을 비롯한 반올림 사람들이 좋았다면 그랬을 거고.

100일이 되기 전 처음 찾은 반올림 농성장은 내리 찢는 햇볕과 추위를 막아줄 지붕 하나 없었고 바닥을 조금 띄어줄 두꺼운 깔판만

있었다. 그렇게 온전히 계절을 우린 있는 힘껏 안았다. 함께 해주었던 전장연, 노들야학 친구들과 아침 8시에 농성장 주위를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반올림에 대한 사안이 담긴 글을 나누어주는 아침 선전전도 같이 갔었다. 우리가 5,6명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농성장에 있던 선전물이 모두 소진되었고 직접 복사를 더 해왔던 것도 생각이 난다. 그렇게 잊기도 쉽고 사실은 별일 아닌 일들이 쌓여갔다. 그렇게 함께 반올림 농성의 하루 중 일부를 채우는 것이 기뻐나 보다.

몇 번 농성장을 찾으니 아는 이들도 많아졌다. 자기네도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농성장에 온다고 반올림 분들은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외박하는 기분이 좋았다. “바블 텐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인사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이 전해졌다. 하루를 구성하는데 바쁨이 뭐길래, 반올림 농성장에 온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서 본 황유미 님의 아버님 황상기 님도 보았다. 농성장에서 같이 간 친구들과 아버님이 같이 야간사수를 하는 기회도 얻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본 박철민 배우와의 역할과 사투리가 너무나 똑같아서 무언가 속으로 신기했다. 이것 또한 영화라면 찬란한 결말도 우리에게 와주기를 빌어보았다. 속초에서 아직도 택시운전을 한다는 아버님, 매주 속초에서 강남역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오고가는 아버님의 그 서울로 오는 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11시가 되니 따님의 이야기와 삼성과의 투쟁에서 서려있던 이야기를 접어두고 주무셨다.

따님을 속초 울산바위 언덕에 묻어두고 속

초에서 매주 오는 아버님처럼, 1023일 동안 매주 휠체어를 탄 딸, 한혜경 님(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과 함께 춘천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온 김시녀 어머니. 나에겐 이들이 영웅이었다.

삶을 복구한다는 것이 감히 난 상상이 안간다. 요즘 나의 삶은 무언가를 무너지게 하기도 나의 조금씩 부서졌을 나의 어떤 것을 볼 자신이 없다. 하지만 이 반올림의 영웅들은 그 삶을 애써 무던히 복구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삼성이라는 자본에 대항하며, 그렇게 매일 그 하루들을 지켰다.

이번 3월 반올림 황유미 님의 추모제는 아버님이 딸을 뿌렸던 그 속초 울산바위 언덕을 함께 올랐다. 하늘은 맑았고 마음은 설렘했다. 아침 일찍 사당역에서 모여 출발한 버스는 그렇게 설렌 마음들을 태우고 아버님이 매일 같이 올랐을 그 바위에 함께 갔다. 함께 추모제를 진행했고 황유미 님이 좋아했다는 후리지아를 모두 같이 들고 그녀를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떠났을 그녀/그들을 추모하였다. 요즘 같은 날에는 어제도 올랐을 그 언덕에서 미풍이 불어 아버님의 등을 조금이나마 께찮다고 밀어주었으면 좋겠다. 반올림의 속초행은 그렇게 그 설레는 마음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우리도 그 선물 같은 하루에 함께 했다. 무너질 수 있는 그 많은 삶의 기회들에게 그 선물이 언젠가 꺼내어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함께 했던 친구에게도 빌어본다.

삼성에서 일한 뒤 백혈병 등 질병을 얻은 사람은 360여명.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는다.

2007년 3월 황유미 님 사망으로 촉발된 삼성반도체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반올림은 11년 만에 삼성과 최종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8일 서울반도체 악성립프종 피해노동자 이가영 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26살이 되던 봄이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반올림 중재안 발표 후, 11년간 피해 제보 450건에 절반 정도 되는 제보인 200건이 11,12월 두 달 동안 들어왔다. 반올림의 시즌2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시즌2의 하루들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근사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이 봄의 벚꽃을 좋아했던 가영 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따님을 속초 울산바위 언덕에
묻어두고 속초에서
매주 오는 아버님처럼,
1023일 동안 매주 휠체어를 탄
딸, 한혜경 님과 함께 춘천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온
김시녀 어머니.
나에겐 이들이 영웅이었다.

[형님 한 말씀]

이종각 이사장님께 드립니다.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종각 이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세요.

만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고 있는 초록색의 물결들을 보면서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는데 이종각 이사장님께서 돌아올 수도 없는 곳에 계시니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니 한없이 허전함과 아픔들이 쌓여가는 요즘이 이기도 합니다. 이종각 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신지도 어느새 3년이 지난 세월이 훌쩍 흘러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록 그리움도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각 이사장님께서 그곳에서 평온하시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도우시고 계시는지요. 늘 조용히 배색도 살아 생전에 늘 하셨을 듯이 말입니다. 10년 전에 석암 베레소 자유양원에서 생활하시던 시설인들께서 공인이 각자 개인들의 짐들을 챙겨 무작정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으로 나오셔서 탈시설을 향한 강한 의지를 향한 마음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인의 분들의 탈시설 농성을 하신 것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탈시설에 대한 농성이라고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탈시설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종각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종각 이사장님께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나오신 공인 분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가까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의 중증 장애인 분들께서는 안정된 주거의 환경 속에서 탈시설에 대한 투쟁들을 계속해 탈시설에 성공하신 공인의 탈시설 믿음은 오래오래 빛나고 귀감이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이종각 이사장님의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과 안정된 주거의 환경이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탈시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각 이사장님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종각 이사장님 요즘 그 탈시설 운동이 들불처럼 앞으로 가고 탈시설에 투쟁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인 시설 안에서 자기들의 소중한 연천들을 뺏기면서 생활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시고 계시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모두 시설에서 탈시설로 이사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이전 우리 사회들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설들을 모두 없애고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십년 동안 이 사회의 구조적 타의적으로 소중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온 시설 장애인들 이제는 온갖 폭력과 성폭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뺏기면서 그동안 살아던 시설 이용인들 이전 더 이상 참지 말고 탈시설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 갔음 좋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나날들이 흘러간 시설생활을 지금이라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와서 함께 살았음 좋겠습니다. 이종각 이사장님께 이렇게 탈시설 상황들을 전해 드렸서 저도 마음이 좋네요. 답변 더 좋은 소식들을 전해 드릴게요. 이종각 이사장님 좋은 탈시설의 소식들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원해요. 그런 이종각 이사장님 그곳에서 내내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9년 4월 30일

김명학 드림

호식형과 함께 했던 노들야학

이진희

1998년부터 2002년 노들야학에서 활동했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해 추모하는 자리를 정성껏 만들어주는 노들야학 고맙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자리 덕분에 기억하는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대로 박경석 교장선생님은 추모가를 자처하셨습니다.

꽃다지2를 개사하여 탈시설을 노래하였는데,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이 현재와 이어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지금을 사는 나와 세상의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호식이형을 기억하여 추모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2002년 노들야학을 그만둔 후 호식형은 가끔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하는 기억은 드문데, 과거의 기억으로 추모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호식형과 활동을 했던

2001,2년은 노들야학이 조직적으로 치열했고 그만큼 혼란하기도 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는 장애여성공감으로 활동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의 호식형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시의 나와 노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서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래서 추모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칠었던 시간만큼 기억은 생생하고, 실수와 갈등의 생생한 순간들은 생생하게 몸 안에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호식형과는 노들야학 청솔반 담임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했고, 한 번 마시면 오래 마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기억 보단 술 먹고 너스레를 떨며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2001,2년 노들야학은 장애인동권투쟁을 주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앞두고 집회 일정이 잡히면 야



학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현장투쟁은 집회파로, 검정고시 공부는 검시파로 불리며 양모없이 토론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기에 술을 마시면 장애인도 사람이라고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운동이, 집회가 중요하다고 지지하며 참여를 약속해주던 호식형이 고마웠습니다. 술 깨면 검시파 누구누구와 더 친한 것 같아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회는 자주 참여했고, 자신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도 나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호식형은 예술이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지만 노들에는 그런 활동을 펼칠 모

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확장된 노들에서 철학도 배우고, 연극 공연, 영상 촬영도 하는 호식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3년전 호식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급히 참여했던 추모식이 떠오릅니다. 추모식에는 형이 남긴 한글을 익히던 시절의 노트도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글반에서 함께 연습한 한글 노트였습니다. 울며 추모사를 할 때와 다르게 묘한 감정이 일며 그와 겪었던 갈등들이 상세히 기억났습니다.

아련하고 좋은 기억이 아니라 조금은 지겨웠던 매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과제

를 안 해왔을 때, 나와 자기결정권을 두고 다
뒀을 때, 수업과 집회 참여를 두고 토론했을
때 등. 기억을 더듬어보니 사이가 안 좋았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았고 그저 궁금한 것을 물
었을 테지만, 장애인과의 갈등은 나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평등한 관계나
함께산다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
니다. 장애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
인지 몰음만 있고 답이 없던 시간. 어쩌면 우
리가 채워간 건 한글 노트가 아니라 오답 노트

였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같이 겪었던 청솔
반의 호식형. 형의 오늘을 우리가 볼 순 없지
만, 형이 말했던 그 오늘을 만들기 위해 우리
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했고, 한 번
마시면 오래 마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기억보단 술 먹고
너스레를 떨며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걸고 듣기를 포기하지 않기

자립 욕구 공유회 참관 후기

김수연

노들야학 신입교사 교육 중



2016년 4월 7일, 같은 날 세상을 떠난 두 분의 영정.
왼쪽은 노들야학 학생 고 김호식, 오른쪽은 평원재단 이사장 고 이종각님

지난 3월 6일(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하 노들센터)는 <자립 욕구 공유회:나의 자
립 욕구 재발견>을 열었습니다. 작년까지 사
업설명회가 노들센터의 활동 방향 및 사업 소
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면, 올해에는 '
개인별 참여자의 욕구와 환경 등에 맞춰진 지
원을 계획하고자' 본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행, 문화활동,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이상
네 가지 주제에서 소외된 시설 거주 장애인들
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유회는 노들센터 김필순 사무국장님의
진행과 박경석 고장 선생님의 인사말, 잇따라
신입활동가 분들의 자기소개로 문을 열었습니
다. 공유회는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
고 각 모둠(여행, 문화활동, 건강관리, 일상생
활지원)에서 한 명씩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 속에서 갇혀 있으면
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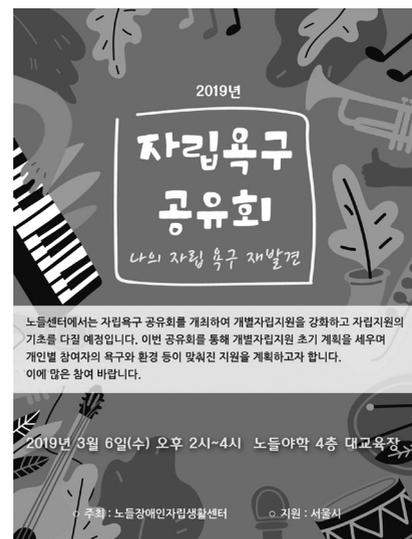
모두가 제각각 파란 하늘, 맛있는 음식 등 재
질재질 꺼내어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
간을 예상했던만, 지지부진한 소통에 난항(!)
을 겪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활동가들의 얼굴
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선호와 경험을 축적해 왔
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한 시간이라는 짧은 동
안에 그림판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검색하여
알려주는 모습은 '자립 욕구 공유회'라기보다 '
자립 욕구 맞추기' 대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는 길게는 수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있음을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들을 것
인지, 통약 불가능한 언어를 가진(것처럼 보이
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동안 생
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화된 삶 자체를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

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이런 욕구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당신의 권리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 2015년 인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인권침해와 회계부정)에 따라 서울시와 도봉구가 폐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순한 의도의 욕구조사를 반대한다'며 자식들의 욕구를 외면하려던 시설 거주자 부모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피를 나누는 가족이 저버린, 지역사회 안에 마련되었어야 할 장애인의 자리를 활동가들과 활동지원사들은 바지런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동자에 싹틔 비치는 호기심, 집중하지 못하고 탁자 주위를 빙빙 돌면서도 말간 얼굴에 뜬 해사함을 보니, 자신들의 욕구를 경청하고자 마련된 자리가 썩 마음에 들었던 듯합니다. 여전히 장애로 명명되는 '차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비장애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온 장애인에게 선호와 선택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



해 끊임없이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길을 내주기 위해 비장애사회를 비장애-장애 경계를 넘어 살 만한 곳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 역시 마찬가지로 지겠습니다.

인사말에서 박경석 고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구란 매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자립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자립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풀어보자."

시설 속에서 응고된 과거의 삶을 현재(present) 흐르는 시간과 함께 쪼개어, 매일 변하는 '욕구'와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미래의 꿈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걸고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노들이라는 공간에 오면 마음이 풀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때 사람들과 꿈꾸며 주고 받은 온기는 힘들 때 꺼내 볼 수 있는 추억으로 남겠지요. 어쩌면 그 추억을 켜켜이 쌓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잘 가닿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작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 대의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코딩 덕후이며 지금은 통신회사에서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철학을 좋아하며 최근에는 정창조 동지가 쓴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전선들>을 힘겹게 읽고 있다. 많은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연대하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장판에서 외로이 있다

최재민 어디서 오셨어요?
이종운 아~! 저는 양유진 친구예요. 420 집회 참석하려고 왔어요."
최재민 아 그렇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18년 420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이 발바닥 최재민 동지였고, 활짝 웃는 미소로 반겨주어 나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장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타잔~! 타잔~! 이라고 치타가 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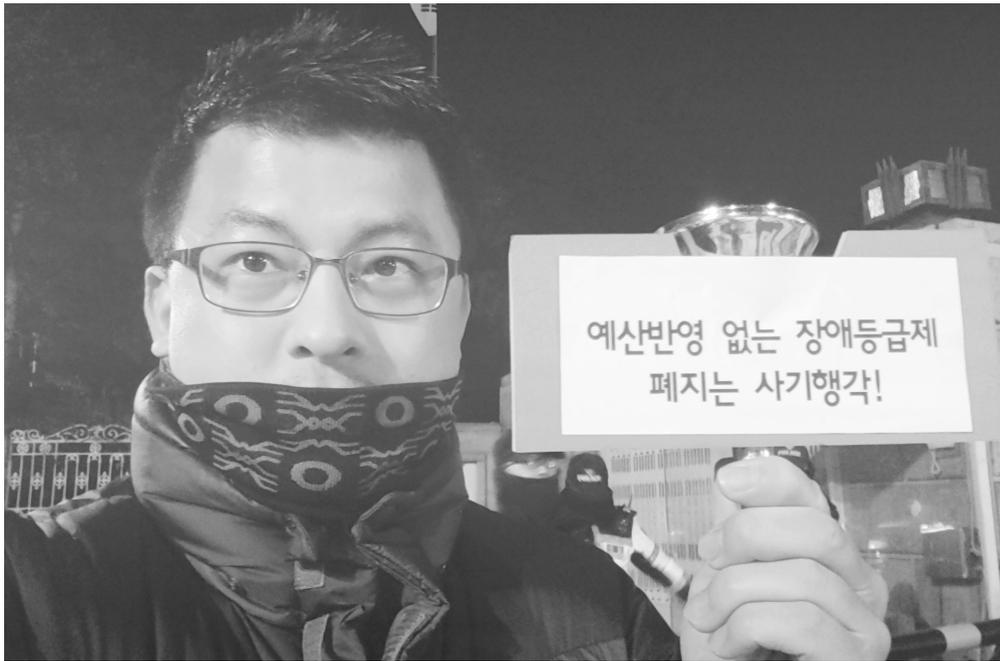
유치원 때 숨을 죽이며 <타잔> 동화책 라디오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대사이다. 그렇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경증의 청력 손상이 있었고, 보청기를 낀 상태로 숨을 죽이며 온 신경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어느정도 들을 수 있었다. 그

러던 어느날,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때부터 보청기가 소용없게 되었고 상대방의 입 모양 움직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왔다.

“3년간의 재수생활이 나에게 준 것”

평생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내가 고2 마무리할 즈음에 늦은 공부 바람이 불었다. 어째서였을까? 사연은 그러하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라는 작은 동네에서 지내고 있었고 대학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눈과 발이 전부인 작은 동네였다.

하루는 서울에 놀러갔고 이때, 젊음의 거리를 누비는 많은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왠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길로 나는 공



18년 420집회

부를 시작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때부터였을까? 그 이전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의 장애가 크게 와닿는 순간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슬슬 나의 장애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학원이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자막이 나오질 않았다. 책만 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를 했다. 3년간의 재수생활을 마친 뒤에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황을 통해 장애운동을 알게 되다!!”

2008년 ‘장황’이라는, 장애인중연대현장 활동의 줄임말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학생 및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문제의 사회적 이해’를 공부하고 ‘현장 활동’을 하는 모임을 통해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장애’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장황을 한 이후부터는 ‘장애’란 사회적 구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며 우리의 권리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장황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하여!!!”

지난 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새해를 맞이했다. 이때, 발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	을	장	차	연	장	비	회	원
이								
중	운	입	니	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의 마지막 시간과 2019년의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어떤 숫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급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이 나라에 전달되어서인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등급제 폐지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가 온전히 인정되는 진짜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이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며칠 전 여기 계신 박경석 대표님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현아 동지가 문자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대표님이 그렇게 재미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재미있고 멋진 분이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술 한잔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그렇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한글 대학 배우 공부 열심히

박성숙

노들야학 학생입니다.



경동초등학교 6학년 때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성수 여중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송달호 수학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양 고등학교 다닐 땐 혼자 밥 먹었습니다. 지금은 성동장애인 복지관에서 독서 비누 만들기 영화보기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딸기가 좋아요. 맛있잖아요.

혜운이 엄마의 소개로 노들야학에 왔어요. 입학신청서를 쓰고 담임선생님인 유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재밌어요. 천성호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

서 병원에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고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엄마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빠 두 명이랑 그때부터 살고 있어요. 제 오빠는 네 명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오빠는 셋째 넷째 오빠입니다. 셋째 오빠는 은행에 다녔어요.

타인의 노들야학

정종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연대하고 투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의식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돈값으로 매겨지는 만족을 가르치려 들었던 친족이나 선생들이 반 교사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이라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야 한다거나 나부터 출세해서 잘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사람을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사악한 선동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들은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이 그 자신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짊어지는 시대의 희생양이 아닐까. 슬프게도, 가난해지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고통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를 윤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주변을 보건대 차라리 피해자였던 사람은 자신의 굴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타인을 짓밟거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격표와 가치를 혼동하는 세상, 이미 서로의 독특함을 빼앗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상은 나를 책으로 밀어냈다. 삶의 목적은 냉정한 사람들의 냉정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라며, 매물들의 집합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보따리장수들의 공동체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을 책은 가르쳐 주었다. 인간적인 삶, 그리고 이에 부응해 사는 삶이 가치가 있으며 자신을 온전히 걸어볼 만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에 관하여 적당한 표현을 찾는 도중 움베르토 에코의 문장이 생각나 옮겨본다.

“우리를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은 타인의 표정이다. 우리가 먹지 않거나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타인의 표정과 반응 없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다. ... 우리를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결과란 미치거나 죽는 것이다.”

인간적인 삶이란 자신이 아닌 것을 통해 자신이 사는 것에 관한 것일 것이다. 즉 서로를 내

어쨌든 구성되고 확장되는 세상에서 살아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뿐인 이 세계를 더 즐겁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삶일 것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발견한 세상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노들장애인야학이라는 곳을 무에서 솟아오르듯 만난 뒤 소급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처음 노들야학에 왔을 때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상근 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지금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고백하건데 나는 이곳의 사람들로 부터 감동적일만큼 귀한 배움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게 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배웠다. 이곳의 사람들은 듣는 입을 가졌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장애인 운동의 슬로건처럼 노들야학의 사람들이 누구도 자격이 없다거나 적당하지 않다며 쉽게 귀를 닫거나 거부하지 않는 모습은 노들야학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나 또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4월 30일, 이 글을 쓰는 오늘 일어났던 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정부 관료, 교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

석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약속한 뒤 관료들의 견해를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심포지엄이 끝나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논하는 자리인지 제도 개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자고 논하는 자리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수급과 제도 개선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핑계로 부정수급을 이야기하며 복지확대를 막지 마십시오. 최소한 OECD 평균예산 확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기초법 개정해야 합니다."

자기주장을 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힘은 더 넓은 범위의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갓 몽상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의심하고 수치심을 안겨서 배제하고 분열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포함하고 연대하는 제도를 위해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난한 우리들이 손을 잡고 투쟁해야 한다. 노들에서 나는 내가 시도되지 않는 것을 시도하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의 책임을 떠안기를, 타인의 행복을 책임지기를, 즉 인간다움에 복무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다시 시작하는 일

김은순

나는 8개월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장애가 있어 밑에 남동생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특수학교인 명혜학교를 졸업한 후 건국대 문헌정보를 졸업했다. 서울DPI 부설 새날도서관에서 3년 8개월 일했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5년 정도 일하고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일하고 있다.



투쟁!!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반상근으로 일하게 된 김은순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 일반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안산에 있는 특수학교를 통해 건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장애인계를 들어오게 된 것은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 저기

를 찾다가 서울DPI 부설 새날도서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날도서관에서 약 4년을 일하다가 퇴사하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는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쉬다가 대학 때 같은 학교 동기(조재범)가 연락이 와 편의시설 조사원으로 일을 1년 한 후 그 다음 해에 편의시설 조사원, 권익옹호활동과 동료상담가로 일을 하게 되었고, 올해 정식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 비상근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망가진 몸을 위해 목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고 허리디스크도 있지만 아픈 것이 겁이 나서 치료만 받고, 점점 나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집에만 있는 나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쉬는 동안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것 해봐" 이 말에 용기를 얻어 하고 싶은 사진 배우기, 여행 다니기, 한지공예, 재봉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허전한 마음, 무언가 빠져 있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기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이 많기

도 하고, 몸도 마음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열심히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옆에 사람도 챙길 수 있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쉬고 난 후 권익옹호로 현장에 처음으로 가는 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행동은 조금 두려웠습니다. 권익옹호 현장은 10년 동안 하지 않다가 나간 서명전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눈들이 나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어색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지 말자,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니 끝날 때에는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살면서 장애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살다보니 편의시설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편의시설 조사원으로 2년 동안 조사하다가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편의시설 조사를 열심히 하고 권익옹호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익옹호를 계기로 마음가짐이 조금이나마 운동성을 드러나게 된 것 같고, 아직 부족하지만 운동성 있는 운동가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일기]

권익옹호반 소개합니다

김필순

투쟁을 권익옹호활동이라 부르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익옹호반이라.. 노들야학에 투쟁반은 있을 것 같은데 권익옹호반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찬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광화문농성장에서 권익옹호활동가들의 활동소감을 정리한 <노들바람> 글이 생각난다. 2016년 권익옹호활동가들(이후 '권활')과 고군분투 활동을 만들어갈 때 투쟁이 없는 날, 권익옹호 활동이 없는 날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면서 권익옹호교육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교육을 확장해 노란들판에서 활동하는 권활들이 모여 투쟁도 하고, 공부도 하는 권익옹호반이 2018년 만들어졌다. 명학, 동림, 탄진, 주원, 경진, 상우, 영은, 지호, 상용 외 노들센터와 센터판에서 활동하는 남희, 은순 그리고 각 단위별 권익옹호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자들도 함께 수업한다.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주최하고 연대하

는 우리,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자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는 다를 수 있다. 그건 학생들뿐 아니라 상근자들도 같지 않을까 싶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라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익옹호반은 권익옹호활동이라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전망을 가진 이들이 본인의 활동에 내용적 기반과 내적 기반을 쌓는데 도움되는 수업이고자 한다.

권익옹호반은 현장활동(수업)과 교실수업(활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수업은 기자회견, 집회, 세미나, 토론회 등 교실 밖 권익옹호활동이고, 교실수업은 현재 진행 중인 권익옹호활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본인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현재의 투쟁의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권리협약, 임대주택 등 장애인당사자로서, 활동가로서 필요한 주제



권익옹호반 투쟁현장

를 선정하기도 한다. 투쟁현장을 단단히 채워가는 노란틀판 권활은 현장수업뿐 아니라 교실 수업 출석률도 높아 교실수업도 단단하다.

권익옹호반은 함께 투쟁하고,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불어라 노들바람’ 가사처럼. 현장수업에서 ‘일일일사’는 그날의 활동을 사진으로 단톡방에 남기는 것이다. 반에는 시각장애 학생도 있어 사진만 올라오면 내용을 알 수 없기에 텍스트도 남긴다. 손사용이 어려운 활동가들은 다른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기도 한다. 본인의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현장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권익옹호반의 일일일사는 집행부가 준비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내가 아닌 현장에

서 주체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노들야학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실수업에서 지난 활동사진을 보면서 권익옹호활동을 갈무리한다. 활동사진이라고 해서 투쟁모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하루 인상적인 장면, 재미있었던 장면들도 기억한다. 주원형이 농성장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 노들 깃발 멋지게 펼친 모습, 애경언니가 멋진 선글라스를 쓴 모습 등 재미있는 사진이 많다. 노들야학 홈페이지에 올려와요.

교실수업에서 ‘일일일정’은 각자 관심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해한 내용을 발제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발제를? 우려의 탄성처럼

일일일정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지만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었다. 명학(장애등급제) 지호(부양의무제) 영은(장애인수용시설) 탄진(노동권) 경진(문화권) 주원(의료급여) 남희(이동권) 이렇게 각자의 관심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일일일정 덕분에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을 읽을 기회를 가졌는데 이 선행학습으로 박경석의 장애인정책 구문학습 시 도움이 되고 있다.

누군가는 권익옹호활동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기에 열심히 활동하고 수업도 받는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 학생들이 돈을 버는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 투쟁하는 일도,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춤추는 것도 노동이 되고 돈을 버는 일이 되면 좋겠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직무 중 권익옹호활동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번 서울시 투쟁을 통해 서울형 공공일자리에 권익옹호활동과 문화활동이 포함되었다. 노들야학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는 시간을 만들어가자.



新서유기 노들담복지관을 찾아서

정민구
낯수업교사 명구

‘쿵쿵쿵’ 어디서 뭐 타는 냄새 안나요?

이 냄새는 낯수업 교사 애간장 타는 냄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낯수업은 작년에 많은 일을 겪었다. (사실 매년...) 이곳은 세링게티인가 교실인가. 동물의 왕국 저리 가라 할 만큼 스펙타클하게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실에 붙어 닥친 한바탕 태풍은 결국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녀는 야학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항상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에 언뜻 보면 그녀의 문제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교사와 그녀에게 맞지 않는 수업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해야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들담복지관을 찾았다.

★ 삼장법사의 마음으로

서유기에서 불전을 찾아 떠나는 삼장법사의 마음이 이랬을까. 2019년 1월 11일 진수, 성호, 권금, 임당, 민구, 창현, 화영, 유미 이렇게 8명의 교사가 노들담으로 향했다. 기관 및 사업소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기관을 둘러봤다. 인상적이었다. 아니 인상적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이 들었다. 발달

장애인을 생각하는 섬세함과 기발함에 놀라고 그 놀라움은 곧 부러움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음에 개탄하며 기관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다ㅋㅋㅋ 알콜성 치맨지 원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죽일 놈의 뇌세포를 최대한 쥐어짜며 기억 저편에 깊이 박혀 있는 조각들을 끄집어내려한다.

★ 긍정행동지원실

노들담복지관에서는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아산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긍정행동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행동지원실’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미국의 선진기관으로 연수를 갔을 때 만난 특수교육, 행동지원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빙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문을 받아가며 꼼꼼하게 리모델링한 공간이라고 한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이용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곳은 크게 개별공간과 단체공간, 그리고 감정공간과

휴식공간, 감각공간으로 나뉘볼 수 있다. 환경구성 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공간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 공간, 가구, 책상, 의자 등이 시각화되어 있는가
- 개별, 집단공간의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가
- 모든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는가
- 예측 가능한 공간인가
- 독립심을 강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감정의 기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다양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가
- 안전, 연령, 욕구, 특성이 고려된 공간인가



1 사진 1 | 개별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된 공간이다.



2 사진 2 |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구슬에서 회의를 때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해진 TIME TIMER이다. 위 사진처럼 40분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놓으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1 사진 3 | 요일별로 해야 할 활동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 해 놓았다. 이것은 짹짹이 되어 있어 스스로 할 일을 갖다 붙이며 예측 가능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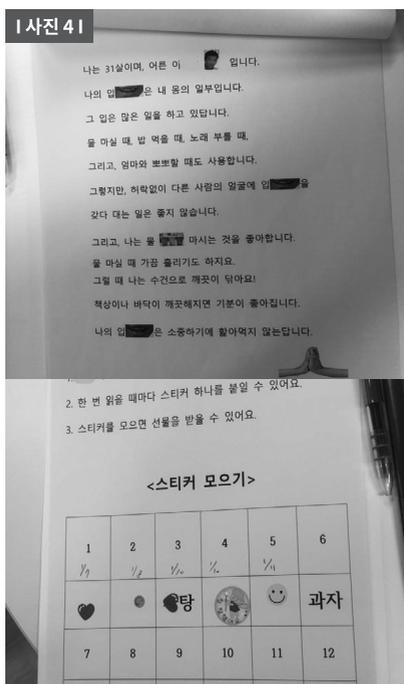
1 사진 5 |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그림카드, 낱말 카드, 손으로 누르면 저장된 음성이 나오는 버튼, 일종의 인형극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등.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보호와 통제 대신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겠다. 긍정행동 지원실뿐만 아니라 자세유지기구센터/보조기센터 등 다른 공간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생략하도록 한다. 기관에서도 이렇게 길게 라운딩 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3시간 이상의 간담회와 라운딩을 진행했다.

개별공간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의 흥미를 고려해서 계획된다. 점심 식단에 관심이 많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점심메뉴 알리기' 활동을 하고 손님접대를 좋아하는 참여자에게는 '테이블 셋팅 및 정리' 활동을 구성한다. 그리고 지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 준비를 지원한다.

햇볕 좋을 때 들어와 어두운 밤하늘의 달을 보며 건물을 나섰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노들에서 시도하기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다. 하지만 길게 보고 조금씩 변화해 간다면 노들이라는 공간이 좀 더 발달장애인과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 자원은 복지관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겠지만 우리에게 인권 감수성 총만 한 훌륭한 낯수업 교사들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당탕탕 시끄럽게 소리 내며 그렇게 쪽 굴러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어.

불전을 찾아 떠나는 삼장법사의 마음으로 노들담에 왔지만 우리는 삼장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다. 삼장은 손오공을 길들이기 위해 머리에 금고아를 씌우고 억압적으로 통제하며 굴복시켰지만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변화해 나갈 것이다. 보호와 통제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살아갈



1 사진 4 | 스스로 소리 내어 읽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스티커 하나를 모을 수 있다. 스티커를 다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31살이며, 어른 이00입니다.
나의 입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 입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 마실 때, 밥 먹을 때, 노래 부를 때,
그리고 엄마와 보보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입을 갖다 대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가끔 흘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나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요!
책상이나 바닥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의 입은 소중한기에 활아먹지 않는답니다.

잃어버린 기억과 남은 기억

인강원 방문기

김진수

자기 소개는 후원주점 홍보로 대신합니다. 후원주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6월 15일 노들야학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

노들야학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 반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수업을 이른바 낮수업이라고 부른다. 낮수업에는 15명의 교사가 있다.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학생들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낮수업 교사들은 인강원에 방문 했다. 장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시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된다. 시설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인권 유린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시설을 벗어난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내겐 잃어버린 기억과 남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정확히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만들어 내지 못한 이야기일 텐데, 남은 기억이 드러날 때는 이런 순간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노들이 좋은 이유나, 노들에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난 그에 대한 답변으로 10년 전 노들에서 겪었던 일들 중 내게 남은 이야기를 한다.

10년 전 노들에는 석암시설에서 이제 막 탈시설을 한 학생들이 참 많았다. 시설에 있기를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한 여덟 분이 그들인데,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변화는 참으로 눈부셨다. 나는 그 눈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시설에서 나와 공부를 하고 야학 교사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하는 그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때의 경험은 그 당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답을 주는 경험이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나도 저들과 같은 선택을 하리라. 남의 말이나 시선보다는 내 의지와 자유를 믿고 따르리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노들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히 결합된 경험이었다.

인강원에 가서 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주인'들의 숙소로 이동했다. 긴 복도에 나란히 연결된 방들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복도 중간에는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모로 누워있는 분의 모습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양 그 옆을 지나치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이어진 창문에는 쇠창살이 그 길이에 맞춰 사람의 몸이 통과되지 못할 만큼의 넓이로 이어져 있었다.

인강원 기관 방문을 마치고 오는 길에 10년 전 내가 겪었던 노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눈부시게 찬란한 기억, 아니 눈부신 찬란함으로만 남아있는 기억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반쪽뿐인 답을 찾고 인생의 큰 무언가를 알았다는 듯 지껄이는 모습이 부끄러웠다. 이제 내게 그 기억은 눈부시게 빛났던 그들의 일상에 잃어버렸던 기억인 시설에서의 삶

의 모습이 덧붙여진 기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덧붙여진 기억은 빛났던 그들의 일상에 비해 여전히 길고 크고 깊다.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낮수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예전처럼 난 여전히 아름다운 기억에 대해서만 말할지 모른다. 낮수업의 아름다움은 사실이지만 거기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 낮수업의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함께 그들이 시설에서 그리고 시설에 오기 전에 가족들과 같이 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억압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혹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낮수업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야 한다. 잃어버린 기억은 찾을 수 있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1

활동지원의 가치는 이용자의 인권과 함께 성장하는 것

연용분



시간이 흐르면서 제 딸이 대학생이 되고 마음의 여유와 성장에 대해 고민하던 중 평소 애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해 보면 어때? 라고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일은 또 다른 나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속에 직업으로 다가왔고, 좋은 활동지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용자를 만났고, 하루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활동지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낄 사이도 없이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이용자는 일상 대화가 아닌 자신만이 알고 느끼는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함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용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을 아는 것보다도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고, 어떻게 그것을 이어나갈지 그 방법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용자의 도전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의사소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용자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할 때 옆에서 이용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야학 선생님의 도움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을 긍정행동으로 지원하는 매뉴얼을 읽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용자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하며 도전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자의 마음이 보이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세상과 편안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쓰인 말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연결 되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에 있어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역할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세상 밖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던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립을 하면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활동지원이 참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활동지원 일의 지속성과 일에 대한 가치는 이용자의 인권의 가치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통해 자유롭게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용자의 모습 속에 삶의 아름다움과 세상에서 꽃을 피우려는 용기 있는 도전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의 일은 보람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옵니다. 저는 활동지원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2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김태열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있는 김태열입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 김상희 팀장님의 부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은 잘 못 쓰지만 재밌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지원사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쉬고 있을 때 한 지인이 활동지원사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인 정립회관에서 2013년 5월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꼬박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유형의 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하여 수업을 받았지만 처음에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모든 게 서툴고 낯설어서 실수도 많

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용자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편이라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시선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수고한다면 옆에 이용자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동생이라고 대답하면 '대단하다'라는 칭찬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정도 활동지원사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용자와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날 때입니다. 저는 이용자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일임에도 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지원사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용자와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의 이용자와 만난 지 1년이 되었는데 가끔은 제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마음 먹었던 것처럼 안 할 때가 있어서 1년 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놓지 않으

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항상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이용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면 감기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천마산에 갔는데 산 아래는 봄꽃이 피었고 산 위에는 흰눈이 쌓여 있어서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끝으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오늘도 모두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쓰레기를 줍다! 복지 일자리 인터뷰 겸 소개 글

배승천

노들야학에서 복지일자리와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화반과 기초사회반도요.

노들야학이 올해부터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올해부터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는 복지일자리 청소 담당 덕분입니다. 2017년 노들센터 권익옹호팀을 시작으로 노들 급식 담당, 인권교육 담당 등 유리빌딩에서 함께 일하시는 노들야학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다녔던 야학과 일을 하며 다니는 야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침엔 일하고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공부도 하고 너무 피곤하지는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궁금한 점들을 복지일자리(주로 청소담당) 노동자 분들을 모시고 물어보았습니다.

진수 복지일자리 청소일을 아침에 하고 있잖아요. 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은 어떠세요?
희용 힘들어요. 힘들지만 기분이 좋아요.
승천 뭐가 힘들어요?
희용 청소일이 힘든데,,,
승천 야학에 오면 청소 일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청소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민 청소기로 숙~~~
지민 청소기 하나 사야 해요.
문규 너무 커서.
지민 네. 너무 커요.
승천 청소기를 사야 하는 군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얼마 받는지



복지일자리 (주로 청소담당) 노동자 분들

아세요?
진수 월급을 받고 나서의 기분이 어떠신지?
희용 기분이 좋지요~
승천 월급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희용 몰라요~
승천 월급날은 매달 5일입니다. 월급은 얼마 받으세요?
다들 묵묵
승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자세 같아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이야 나오겠지 하는 자세요.
승천 노들야학 2층 바닥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무슨 청소를 하세요?
희용 변기 청소를 해요. 칩! 칩! 칩! 부러서 솔로 이렇게 닦고,
문규 변기 닦는 데는 수세미로 전체적으로 다 닦고 있어요.
승천 매일 매일 하시고.
진수 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승천 노들야학 26년 역사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희용 청소하다가 물이 끊긴 일이 있었어요. 칩 부리려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저 위에 설거지물도 끊어졌

더라구. 요 앞에 컵 닦는 데도 물이 안 나오고.
문규 창들도 먼지 털이로 다 닦고 있어요. 테이블도 행주로 닦고.
진수 희용님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힘들세요?
희용 바닥, 기름칠 하는 게 힘들어요.
승천 우리가 예전 학교처럼 나무 바닥이라 기름칠을 자주 해야 해서 힘들시겠네요.
진수 회식은 했나요?
지민 안했어요.
문규 회식을 잡아줘야 하는데 못 잡아주셔서...
모두 하하하하
지민 승천샘이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해야죠.
승천 네 회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을 해야죠.
희용 (화장실에) 뿌리는 게 독했는데, 바꾸고 나서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들 독해요.
승천 제가 사 놓은 베이킹 소다는 약한가요?
희용 그건 너무 약해요.
진수 청소 하면서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없나요?
지민 청소기 미는 게 재미있어요.
승천 전에 돈을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있나요?
지민 전엔 없어요...
희용 저도 없어요...
승천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일하시는 거네요.
진수 문규쌤도 이렇게 발달장애인들과 일한 적은 처음인가요?
문규 들다방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요.

갑자기 흥철, 희정이 들어옴. 흥철, 희정은 복

지일자리 중 야학 급식 담당입니다.
 설거지 이야기를 잠시~ 힘들 배들

승천 두 분은 설거지 하면서 힘들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흥철 힘들어요.
희정 어깨가 아파요.
흥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도 태종이 형 (태종도 설거지 담당입니다)과 싸웠어요. 말로 설거지하는 것 있잖아요. (설거지)기계 안에 거길 보니까 이모가 그 안을 닦고 있더라고요. 태종이형이 안까지 닦으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큰 소리로 인상을 쓰고 말을 하니깐, 내가 태종이형의 말투를 알긴 하는데, 나도 거길 닦는 게 잘 안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희용 장기님이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청소를 같이 하자 그러면 화부터 내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그럴 때면 이야기를 못해요. 희정님이 장난을 자주 치기도 하고.
문규 흥철씨랑 희정씨가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2층에서도 청소를 열심히 해 주셔서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요.
진수 희정, 흥철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흥철 그냥 사먹으면 되지.
모두 하하하하
승천 아침에 오는 것은 안 힘들세요?
희용 안 힘들어요,
지민 안 힘들어요.
승천 청소 일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은 것 없

으세요?
희용 설거지.
승천, 진수 아~ 설거지~~
홍철 이씨~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지민 나는 청소일이 좋아요.
승천 지민이형은 청소하면서 청소기를 사용
 하고 집에서도 청소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청소기도 하나 구입
 하셨잖아요.
승천 돈 벌면 뭐 하세요? 돈 번 것은 어떻게
 쓰셨어요?
지민 들다방에서 커피를 많이 사먹고 옷을
 요즘에 많이 사요.
희용 전 뭐 들은 게 있어요. 적금을 들어요.
홍철 난 이모한테 커피 사주고. 나머지는 반
 찬 사고.
승천 내년에는 일을 더 많이 해볼 생각은 없
 으세요? 돈도 더 벌고?
희정 내년에는 더 (많이 일할)하고 싶어요.
홍철 전 그냥 이대로 아직은 욕심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져 버리니까.
 욕심이 없어요. 수급비도 깎이고 하나까.
문규 수급비가 많이 깎이더라고요.
승천 홍철은 좀 더 욕심을 부려야 하는데.....
희용 전 (지금은 2층만 청소하지만) 4층까지
 청소를 하고 싶어요.
지민 저는 딱 지금이 좋아요.
승천 문규쌤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마무리를
 할 까요?
문규 청소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청소를 하면 빨리 끝날 텐데,
 각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일
 자리 분들이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 빨리 끝나고 청소도 깨끗이
 되니까,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요. 같이 청소를 하면 좋겠어요.
승천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
 다!! 우리 더 잘합시다~~

노들야학에서는 공부도 하고 투쟁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젠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지일자리에 책정된 급여가 너무 적는데 그 적은 돈을 받
 는다고 수급비가 또 깎입니다.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기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일의 범위는 너무나 작
 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만들었지만 수많은 차별의 장벽으로 이제 평생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나 몰라라 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일을 시작해 다행입니다. 복지일자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탄탄해지길 바
 랍니다. 다른 노동처럼 복지일자리도 노조를 만들고 파업도 해서 노동의 권리를 찾으면 좋
 겠습니다.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아침

장애차별철폐 투쟁의 날에 태어난 덕에 장애운동을 늘
 응원해왔습니다. 현재는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의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2018년 가을 유난히 '언니'가 필요한 날이
 었다. 어쩌다 통화가 된 엄청 바쁜 언니와 만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협업'강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궁금
 했다. 중증 장애인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강의한
 다는 것. '그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호기심
 에 이끌렸고 어쩌다보니 나야 장애인권교육센
 터에 인턴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들과의 좌충우돌 3주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
 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다.
 공공영역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투
 쟁을 해왔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대)과 나야에서는 이 교육을 중증장애인이 실

시하는 제안을 했다. 언어장애를 동반한 중증
 장애인이 홀로 한 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니 협업과정을 만들어
 나야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에서의 일정(1일 6시간)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편의에 맞추어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교
 육이지만 그마저도 고된 일정으로 다가왔다.

나야에서 선임한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 하
 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보석같은 내용들이었
 다. 너무나 모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장
 애, 장애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률 등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비장애인들과의 교육경험이 압도적인 입
 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큰 자극적인 경험
 이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은 50명 넘게 충분
 히 들어가는 강당은 40인으로도 꽉 찬다. 휠
 체어 탄 중증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 분들까
 지 있다보니 누군가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명
 이 도미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경험도 새로웠

다. '언니'의 추천으로 중증장애인들과 교육 경험이 있긴 했지만 조력을 받아가며 길어야 3시간 정도 진행했던 경험만 있었는데 매일 만나다 보니 점점 말하는 것도 알아듣게 되고 AAC(보완대체의사소통)라는 새로운 소통 방법도 알게 되었다.

피 말리는 평가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각각의 내용만 하더라도 2박 3일이 모자라는데 1시간의 교육내용으로 만들어 전달도 하고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심지어 평가 시간은 15분이다! 맛도 좋고 배부르게 먹고도 살 안찌는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 일단 준비하게 되었다.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 노들야학에서 인권 교육을 하는 오지우님이 짝공을 하자고 했다. 이미 인권교육을 하는 강사이니 내가 이것저것 배울 것이 많으리라 예상하면서 흔쾌히 수락을 하였다. 내용을 15분에 맞추어 버무리는 일도 난감한데 둘은 어떻게 협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감도 없었다. 처음엔 지우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두세 번 물어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소통한다. 짝공이 되어 욕심을 내며 이런저런 공부를 해올 것을 강요해보기도 하고 핑크색으로 된 PPT에 놀라

기도 하면서 평가를 준비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짝공과 함께 우리만의 색을 넣었다. 독특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하려다보니 15분이라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거기다 평가자들의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은 설명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서 통과가 될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행히 지우님과 나는 1차에 합격하였지만, 몇몇 분들은 평가의 규칙에 맞지 않아 아쉽게 탈락하였다. 나야의 실무자로서 이 분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경험으로 남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컸다. 그 분들 한 분 한 분 교육을 이수하며 보였던 열정들이 너무 아쉬워 2차 평가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다. 다행히 함께 피 말리는 2차 평가 과정도 대부분 합격하는 기쁨으로 마무리되었다.

걸치적거리는 존재, 그림자로 취급받는 존재가 되는 경험

피말리는 평가에 통과되었어도 끝은 아니었다. 바로 지우님과 교육을 가기로 했다. 지우님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동영상 만들었다. 영상에 나온 일본 아소산 정상에 올라 찍은 사진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사회의 장애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법과 관련된 설명은 AAC를 통해 수월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설명보다 질문으로 참가자들을 이끄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여러 번 연습하면서 강의를 나갔다. 각자 좋아하는 색으로 된 꽃 브로치를 엮갈려 달았다. 나름 1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환영을 받아왔던 나는 '걸치적거리는 존재, 그

림자처럼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존재' 취급을 받았다. 교육 참가자들은 강직과 언어장애가 있는 짝공강사가 한 마디 한 마디 온 몸으로 말을 하는 동안에는 엄청 귀 기울이며 한 단어 한 단어 알아들으려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내가 두어마디 설명을 이어가면 "대충 알 만한 내용이니깐 빨리 끝내라!"라는 눈빛으로 매섭게 쳐다봤다. 위축이 될 정도의 경험을 평생 받아오면서도 곳곳하게 사회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는 장애운동의 동지들에 대한 존경심이 무력무력 자라나기도 하였다.

귀한 명함을 받았다

올해 나야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강사단을 운영한다. 법정무교육이지만 간이 교육이나 영상교육, 사업주에 의한 교육이 가능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강사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수급권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4명의 고용강사를 두게 되었다. 본격 사업을 시작하는 발족식에서 고용강사 명함을 드렸을 때의 그 표정은 그동안 사업 진행에 대해 회의적이던 마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고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온 얼굴의 주름이 확 펴지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 기억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 기억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식행사

<노들바람>에 노란들판
소모임 [식물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식행사)]을 소개합니다!

★ 안시름 (안시외움)

• 가입동기

거창한 가입동기는 없고요. 이번에 사무실 추가 공간 관련 준비를 하면서,, 식물이 있으면 공간이 더 생기 넘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꽃꽂이를 꼭 배워 보고 싶었는데,, 식행사에 가입하면 꽃꽂이를 비롯하여, 더 많은 식물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하고 싶은 활동

우선 첫 번째는, 활동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식행사 첫 활동으로 구입한 화분을 잘 살리는 것이예요- 아무래도 사무실이 건조하고, 햇빛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ㅠㅠ.. 두번째는, 어버이날 카네이션 직접 만들기 같은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제발요!!! 또 말해도 된다면,, 꽃축제도 꼭 가고 싶습니다.

• 공식 모임 후 느낀점

4월 모임으로, 구입한 화분 분갈이를 진행했는데요. 어릴 때 말던 흙냄새를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맡았어요. 온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구요- 식행사 비공식 대장님, 지예킴이 화분을 보고 있으면 힐링된다고 했었는데요, 지예킴의 힐링을 같이 느낄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지예킴

있고 있던 화분에 어느 봄날, 싹이 돋는 걸 보고 식물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40여개의 화분 속 식물들과 함께 살아요~ 식행사에서는 올리브라고 불리우고 싶네요!
노란들판 소모임 식행사는요, 식물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준말이고, 네이버의 유명 원예카페 이름을 따왔습니다. 식행사 구호도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식행사의 주된 활동은 사무실내 화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밖에 회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나씩 하려고 계획중이에요.

3월에는 종로꽃시장을 방문했고, 4월 5일 식목일에는 무려 14개나 되는 화분 분갈이 했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꽃바구니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참참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도 갑니다.
집에서 혼자 하던 취미활동을 같이 모여서 하게 되니, 너무너무 재밌는거 있죠!!

노란들판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그날까지 식행사 파이팅!

★ 햇

노란들판 사무실 제 자리 옆에 오랫동안 함께해온 식물들이 있는데, 저는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식행사 회원들을 만나 반갑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작은 식물 친구들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어주길..! 식행사 파이팅!♥

★ 진실로

금잔디 말고 진잔디, 진잔디?

평소에 식물을 좋아해서 제 자리에 다육이나 화병을 꼭 두었는데 노란들판에 식행사라는 소모임이 생겨서 바로 지원을 했어요. 식행사! 이름처럼 식물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분갈이도 함께 하고, 꽃시장도 갔다 오고 매 모임마다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예킴 쌤님 덕분에 식물에 관심이 더더더 많아졌어요:) 한달에 한번 모이는 소모임이 너무 기다려지고,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꽃꽂이 도전과 꽃 축제에 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외에 다양한 활동으로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들판 식행사 모임에 모두 참여하세요





I need 구몬 박선생님!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본인이 구몬장애인정책학습의 뮤즈라 믿는다. 한동안 본래 이름을 잃고 '아이 니드 어 펜슬'로 불렸다. 구몬을 두 개나 하느라 더 바빠졌다.

작년 12월부터 구몬영어를 시작했다. 시작 전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나는 테스트를 거칠 필요도 없는 수준이므로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했다. 구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학생 집에 방문해서 수업을 약 10~15분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매 수업마다 다음 주까지 풀어야 할 학습지가 배부되고, 숙제 검사가 이뤄진다. 학습지는 여러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형태다. 직장인은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다섯 권씩 시작하다, 나중에는 학습지를 놓고 왔네, 파쇄기에 실수로 넣었네, 하면서 수업을 한 달씩 미뤄 구몬의 기피 대상이라고 했다.

나의 집은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어 대항로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수업할 때였던가, 막 출근한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쌤이 수업 중간에 들어왔다. 처음엔 내가 구몬영어를 배운다는 걸 믿지 않더니, 곧

선생님 옆에 자리를 잡고는 나와 같이 따라했다. "아이 니드 어 캡!(I need a cap!)", "아이 니드 어 펜슬!(I need a pencil!)" 그 뒤로 놀림이 시작됐다. 나는 '조아라'라는 이름을 잃고, '아이 니드 어 펜슬'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만날 때마다 "아이 니드 어 펜슬~ 잘 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 니드 어 펜슬~"...

그러다 어느 뜨거운 뒤물이 자리에서 교장 쌤은 구몬의 학습 형태와 구조를 해석하며, 우리 진보적 장애인운동에도 구몬이 필요하며 일정 연설을 했다. "아이고~ 아라가 아이 니드 어 펜슬~하는데 그거 얼마냐?", "한 달 3만 5천원이에요.", "아이고~ 그럼 나는 더 싸게 할게. 한 달 2만 5천원. 다들 선금 줘봐봐." 이러면서 1만원씩 가져가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구몬장애인정책학습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박경석의 구몬장애인정책학습 참여자 모집

★ 일주일에 10분 요점 강의 및 일주일 분량 주제 읽기

장 소
대항로

시 간
협의해서

주 제
UNCRPD 보고서 / 각 주제별 정책 (복지, 노동, 교통, 교육 등) / 서울시 장애 인정책 / 조직론 / 교육방식론 / 관계론 등

강 사 비
월 2만 5천원

강사소개

- 88년부터 장애인운동 활동의 경험과 협상 실천과 장애인운동의 정보를 가짐
- 죽기 전에 체계적인 전달의 과제를 풀어가 기 위한 고민 중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488402-01-221264

- *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교재도 제공합니다.
- *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 * 단 교육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학습자이면 환불 불가능.

구몬을 신청한 학생들이 꽤나 많은 듯했다. 나는 다른 학생 A, B와 그룹으로 구몬장애인 정책학습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교장 쌤은 끝까지 1:1을 고집했지만, 일정을 잡기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그룹 학습을 요청했다. 두 번째 수업 때 교재를 나눠줬다. 구몬영어 교재와 달리 그림 하나 없이 글자만 뾰족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에 대한 한국 정부 보고서였다.

교재는 그야말로 장애 이슈 총집합체, 의제별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지적 및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 한국의 정책 현황, 정부의 노력과 과제가 서술되어 있었다. 신기한 건, 아는 내용은 무엇이 잘못됐고 과장되어 있

는지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은 적혀 있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바로 이때부터 선생님의 학습 지도(?)가 시작된다. “밑줄 짙!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안 하겠다는 말이지~”하며 보고서를 해석해주기 시작한다. 한 문단씩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현황표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생소한 정책 내용은 학생들의 숙제가 된다. 문제는 한 페이지마다 숙제가 수두룩해서, 어느 날은 숙제를 적기에 바빠 수업이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날도 있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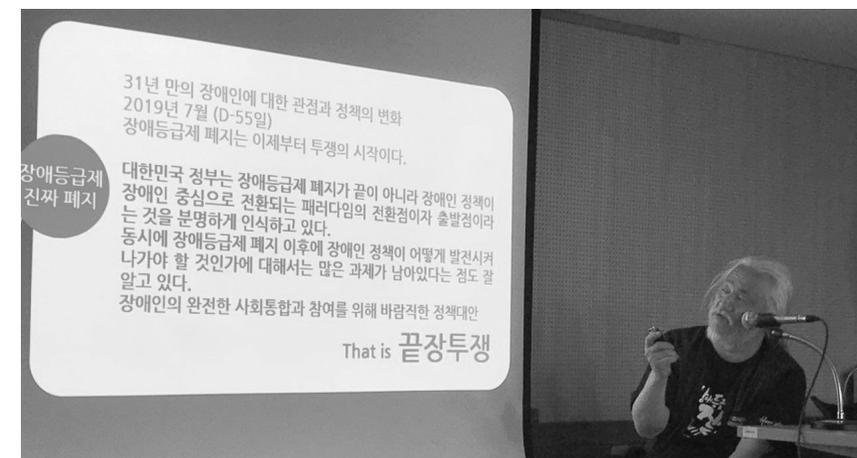
지금까지 수업을 한 여섯 번쯤 했을까? 수업하다 갑자기 회의를 하기도 하고, 고민을 털

어놓기도 하는데 어찌어찌 그날의 수업 내용과 이어진다. 우주 슈퍼스타 강사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다. 어느 날은 수업이 1시간 넘게, 어느 날은 2시간 가까이, 어느 날은 30분..., 모두의 일정과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다음 수업, 그 다음 다음 수업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도 워낙 바쁜 선생님과 학생들이다보니 틀어지기 일쑤다. 꼭 누군가가 한 명은 전날이나 당일엔 확인해야, 서로가 안 까먹고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계~속 수업 약속을 잡는다. 활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손에 문서를 붙들고 있을 시간이란 게 사치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아픈 몸을 끌고 나와 일하고 있는 이들, 지금 당장 일손이 필요해 공공대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이나 내일 보내야 하는 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해 마른세수를 하는 마당에 공부라니 가당치도 않다. 하지만,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사무실, 하염없이 밖에서 소리를 악악 지르는 날들, 밀려드는 의제를 소화하지 못해 어버버한

채로 진행되는 인터뷰, 그 속에서 나는 종종 길을 잃었던 것 같다.

우주 슈퍼스타 강사 교장 쌤과 학생 A, B와의 구몬장애인정책학습은 천천히 걷는 시간이다. 걷고 있는 길이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종종 궁금한 교장 쌤의 속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왜 투쟁하는지, 어떻게 이런 선전을 생각해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지, 그동안 이 운동을 함께 만들어온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되어보려 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피로에 절은 눈을 꿈뻑, 막막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왔을 시간들이 피부에 닿을 땀,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도 같다. 물론 구몬장애인정책학습을 열심히 들어도, 앞으로도 나는 길을 잃을 것이다. 그 때마다 이 수업이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아직도 혼자, 따로 공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얼른 환상을 깨고 구몬 신청하세요~*



[노들 책꽂이]

만일 이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리뷰 『묵묵』, 고병권 지음. 돌베개, 2018

장혜영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을 그래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유튜버 '생각 많은 돌베개언니'. 무사히 평범한 할머니가 되고자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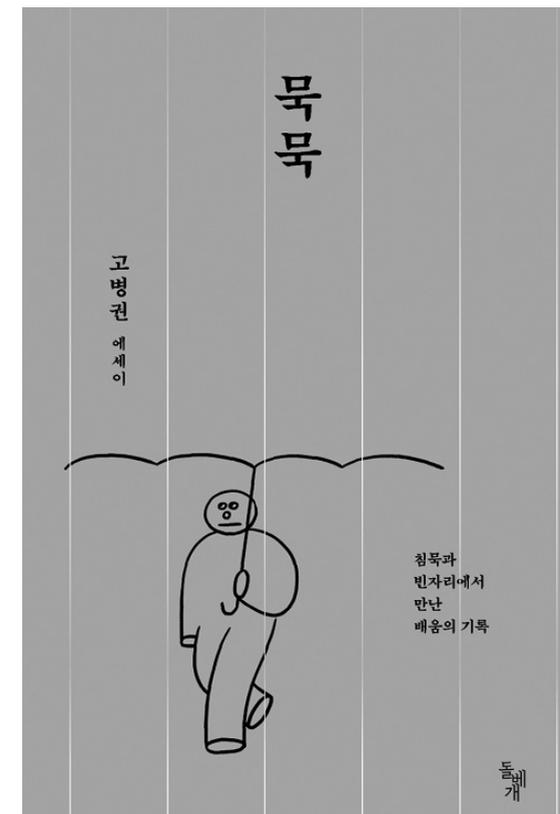
너무 밝은 빛에 눈이 익숙해진 사람은 어둠의 윤곽을 알지 못한다. 깊은 밤에도 도시의 불빛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하늘에 뜬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타오르는 희망의 햇불을 바라보며 걷는 이들에게 햇불이 밝히는 반경의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시간이 지나 햇불이 다 타버리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을 때, 영원처럼 느껴지는 어둠과 정적 속에 선 사람은 어디로 걸어야 할까.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람들은 어떻게 변색된 그 두 글자를 절망이라고 읽는다”고 말하는 고병권의 『묵묵』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희망 없는’ 글들이 모여 만들어진 책이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색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서운 침묵과 캄캄한 어둠, 누군가 있다가 떠나간 빈자리가 스산하게 남아있을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질끈 감았던 눈을 조금씩 다시 떠 보면, 두려움에 틀어막은 귀를 다시 기울이면, 침묵에도 목소리가 있고 어둠 속에는 묵묵히 함께

걷는 이가 있으며 누군가 떠나간 빈자리는 ‘비어 있는’ 형태로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 “희망으로 부풀다 절망으로 꺼진 자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텅 빈 자리와 텅 빈 말이 있었다”고, 저자는 묵묵히 쓴다.

『묵묵』은 텅 빈 말과 자리를 발견한 저자가 그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써낸 침묵과 부재의 견문록이다. 2008년부터 노들장애인야학의 철학 교사가 된 저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노들에서의 첫 수업, 게다가 텍스트는 니체. 학생들의 침묵 속에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허공에 소리 좀 지르다가, 철학 수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던 철학자는 두 번째 시간에 학생 ‘피터’의 “야 이거 골 때리네!”라는 외침에 구원을 받는다. 얇이 삶을 구원할 거라고 강의하던 철학자는 어느새 오랜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다 이제 막 탈시설해 사회로 돌아온 발달장애인 여성에게 “철학자에게도 삶이 앓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



『묵묵』, 고병권 지음

께 공부하며 철학자는 철학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듣지 못함’을 상대방의 ‘말하지 못함’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은 하나의 시선이 되고, 시선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노들야학의 창문을 넘어 광화문 지하의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으로, 콜트콜텍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농성장으로, 세월호 참사의 추모 공간으로, 쿼어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광장으로,

선감학원에서 살아 돌아온 한때는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의 증언대회로, 이 사회 곳곳의 장애인수용시설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진 강아지에게로,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들 “영혼의 밑바닥에 심어져 있는 인식의 나무”를 불안하게 흔드는 바람에게로 향한다. 그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 힘껏 빨아들었던 강물에 누군가 귀를 씻으며 흘러보면, 소수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배제의 언어가 녹아있을지 모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침묵을 채우는 언어에 귀 기울이고 부재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철학자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거침이 없다. 『묵묵』의 세계에서 삶은 변치 않는 북극성을 따라가는 희망찬 항해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꾸어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고, 죽은 듯이 살았던 이들에게는 죽어서도 아직 “살지 않았으므로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1,830일이고 4,000일이고 반복되는 오늘을 버티 기어코 내일을 초래하는 것이다.

『묵묵』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책과 세상을 함께 읽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 먼저 묵묵히 걸었던 이들의 삶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다. 콜텍 노동자들이 투쟁 4,464일 만에 사측으로부터 정리해고 ‘유감 표명’과 ‘명예복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노동자들이 원한 것은 ‘사과’와 ‘위로금’이었지만 사측이 준비한 것은 ‘깊은 유감’과 ‘합의금’이었다. 이제 6개월의 복직 대신 30일의 명예복직이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세계에서 안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임재춘 조합원의 말은 영원한 오늘을 바로잡아 기어코 내일을 불러온 초연한 삶의 언어이다.

콜텍만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에 의해 목소리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선 거리와 계단, 학교와 병원, 일터와 식당과 버스 안에, 모니터와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만일 이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빈자리에 깃들어 살아가는 죽은 이의 살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묵묵』을 손에 펴들 때다. 아무데서나 읽기 시작해도 좋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간 아무 곳에서나 시작되어 아무 곳에서나 끝나버리듯이.

“희망으로 부풀다
절망으로 꺼진 자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텅 빈 자리와
텅 빈 말이 있었다”고,
저자는 묵묵히 쓴다.

[동네 한 바퀴]

노동건강연대 그리고 정우준

김유미

일상 대부분의 커피와 밥을 노들에서 해결하는 사람. 야학에서 수학 2반 수업을 맡고 있다. 이번 학기 목표는 구구단 2단, 5단! <노들바람> 원고를 남들보다 먼저 읽으며 키득거리고 훌쩍이는 시간을 좋아한다.

교복을 입고 큰 볼테 안경을 낀 고등학생을 마로니에공원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기억이 난다. 시사주간지를 챙겨 읽는 학생이었고, 당시 야학이 있던 정립회관 근처에 산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야학 신입교사에 지원했다. 아주 일찌감치 이런 삶을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던 것 같다.

십년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한다. 야학에 회의하러 오거나, 집회 물품을 빌리러 오기도 한다. 지난 겨울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한 노동을 고민하는 활동가 우준을 종종 만났고, 반가웠다. 우준을 사이에 두고 노들과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하여 이번 ‘동네 한 바퀴’에서는 야학 교사 우준과 노동건강연대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야학 교사였고. 아마도 임용시기(?) 기준 야학 최연소 교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

금은 노동건강연대라는 곳에서 1년 반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학이랑은, 수능이 끝난 2007년 11월에 왔으니 벌써 12년째 인연이네요. 물론 중간에 잦은 휴직을 했고, 최근에는 뜨문뜨문 가다보니 유리발딩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우준 선생님이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왜 노들에 안 오고 노동건강연대에 갔어요? ㅎㅎ

물론 생각은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야학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교사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제가 그 정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 같아요. 중요한 건 야학 상근자가 무척 박세자나요^^ 물론 알고 보니 여기도 박세다라는 사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는 대학원 실습을 구하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삼성 핸드폰을 만들던 청년노동자 6명이 메탄올에 의해 급성 실명된 사고가 있었고, 노동건

강연대는 이 분들에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등등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원생이 실습처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노동건강연대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게 야학에서 같이 술 먹던 교사들의 꼬심 때문이었으니 결과적으로 야학 때문에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게 된 셈인 거죠?

여담으로 제가 노들야학에서 활동했다고 하면 여기 사람들도 그런 과격한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야학 소문이 무시무시하게 나있어서 활동하기 좀 편한 것도 있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소개해주세요. 우준 선생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노동건강연대는 1988년 생긴 노동과건강연구회를 전신으로 2001년에 생긴 단체입니다. 주로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의사, 법률가, 노동조합 활동가, 시민들이 주축 회원입니다.하는 일은 이름처럼 노동자건강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특히 하청노동자, 여성노동자, 알바 등과 같이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예전부터 산업재해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산재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기업살인법'(기업처벌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일하는 작은 단체다보니 이런 저런 일을 다 하는 편이지만 주로 장례식장을 찾아서 산재사망 유가족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일, 사망사고가 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하는 일 등을 주로 합니다. 영수증도 풀로 붙이구요. 장점이라면 1년에 2400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기 때문에(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태안, 울산, 대전,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등 전국을 다닐 수 있다는..

작년 겨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님 사고가 있는 후,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준 선생님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사고 이후 산업안전법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된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도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뉴스를 봤어요.

김용균 님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게 여전히 부족하지 궁금해요.

제가 하는 일이 대부분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접하는 죽음마다 엄청난 사연이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좀 더 담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김용균씨 사고가 딱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알려진 후부터 태안을 오갔고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들었구요. 김용균씨 이후 왜 부족한가는 장애등급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폐지돼서 개선된 줄 알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실상 알맹이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가짜 김용균법이죠. 달라진 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정도?



사실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산재사망은 더 늘고 있습니다. 김용균씨처럼 안전한 상황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죠. 노동건강연대는 한 명의 목숨값이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할 때 보통 기업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죠. 이련데 누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한테는 더욱 더 안하는 상황입니다.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만들면 되잖아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원래 위험하지 않은 일도 제대로 된 장비와 휴식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게 만드는 사회니.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면서 노들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

산재노동자와 장애인은 장애와 장해(산재보상상 장애의 개념)라는 다른 이름처럼 제법 거리가 있죠. 물론 산재장애인이라는 범주도 있지만 공통점은 같이 장애등록을 한다는 점 정도인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둘 모두, 사실 사회가 만든 차별로 인해 손상 받은 몸으로 치부되고 노동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일하다 다친 노동자처럼 손상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복지와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학도 죽음이란 단어와 멀지 않잖아요. 일하는 곳은 달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 같아요.

둘 다 추상적이죠?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면 지금 노들센터에 산재노동자를 오랫동안

안 지원하신 분이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둘 간의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야학 수업은 언제 다시 할 예정인지 궁금해요.

늘 마음에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에 자주들 가지진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 해보니 불확실성이 큰 저로서는 한 주에 하루를 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당분간 집회나 후원주점을 열심히 가면서 얼굴을 안 까먹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으려고요. 물론 420집회 못갔습니다.

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노란들판에 처음 왔을 때 한 번 글 써본 거 같은데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실리는 거 같네요. 10년 뒤에도 야학 후원회원이자 교사로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쟁과 생활로 고생하는 여러 노들 단위의 구성원들 그리고 노들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모두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투쟁.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연대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터뷰_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한명희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애쓰며 삽니다. 자기소개 어려워요. 노들야학 한명희입니다.

일시/장소: 4월 24일(수)/ ‘도도야’ 밥집에서 오뎅과 된장미소 나베를 먹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터뷰로 진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한 개의 글로 옮겨 실었습니다.
정리&사진: 명희

현재는 노동·정치·사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단체에서 선임활동가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마침 여기 노들야학이 있는 대학로 근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노들야학과 인연은 노들음악대의 선생님께서 오래 계셨던 김호철 선생님의 소개였어요. 노들야학은 수업에 부족한 교육물품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후원마당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도 저는 사업장에서 특판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장기투쟁 사업장의 경우(예를 들어 해화동에서 10년이 넘게 오랫동안 싸웠던 장기투

쟁 사업장인 재능교육)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활을 하는 것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몸만 힘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유로 확장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원래는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에서 오랜 기간 있었어요. 저도 해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88년 초에 다니던 공장에서 용접공 일을 했었어요. 야학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를 졸업했죠, 대학도 잠깐 다니긴 하였어요. 87년이었던 거예요. 대학은 그 시절 정말 최루탄이 가득했고 거의 수업도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 마침 아는 분의 소개로 울산 공장 용접공으로 노동자가 되었죠. 비정규직이었고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그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그시기에 제가 현장 노동자로서 있었던 거죠. 그 시절을 직접 보고 함께 했다는 것이 저의 기억에 굉장히 크게 남아 있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현장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전해투에 91년부터 활동을 하였어요. 전해투 활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투쟁에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대를 하였습니다. 강제추방이 너무나 심했고 실제로 노동자로서 있지만 언제나 삶의 근간을 뺏겨버리기 일수였죠. 법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으니까요.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장애와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큰 기점으로는 2009년에 전해투 조직국장 활동을 하면서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함께 하였고 그때 연행되어 구치소에 살다가 나왔죠. 그때 둘째, 막둥이가 막 태어날 때쯤이었는데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전해투 활동을 더듬으니 아이들 기억이 젤 항상 먼저 나요. 미안하죠.

지금은 300여명의 회원을 둔 노동·정치·사람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조금 더 많은 이들을 조직하고 싶네요. 청년, 학생, 성소수자, 장애인의 영역에서의 확장된 고민을 하는 테이블도 단체 내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은 언제나 장애운동에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이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노동에 관해, 노동운동이 언제나 적극적으로 결합하지도 못하였고 의제를 함께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말예요. 그래서 노들야학에 중소기업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개발하거나, 소규모로 떼어오는 사업장들을 모아 후원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노들야학이 후원금을 중증장애인의 교육기금(급식 등)으로 쓰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실제로 자주 일상을 보지 못했던 것도 많았기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최근에 박경석 교장샘이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을 맞이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교양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도 좋았어요. 회원들도 대충은 구호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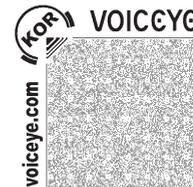
앞으로도 후원바자회 등이 안정적으로 열려,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되고 싶고 저는 그런 활동 등이 연대의 방식 중 하나라 생각해요. 언제 사무실 한번 놀러오세요.



2019년 5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미자 강미진 강병완 강복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용원 강운석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순 고명희 고선희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고혜숙 고혜순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공호신 곽노근 곽상아 곽성자 곽영미 구만순 구민재 구세나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두섭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지은 권진영 권태국 권한기 권혁은 권현기 권혜선 금교영 길성삼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란 김경은 김경혜 김계숙 김관희 김광국 김국란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금순 김금정 김기오 김남수 김남희 김누리 김대희 김덕중 김도경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란희 김명애 김명학 김명화 김문옥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희 김범순 김범식 김보경 김보라미 김보민 김보연 김보영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수 김상원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세영 김소명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순남 김아라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정 김연지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승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영희 김옥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자 김윤진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인자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하 김정현 김종호 김준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원 김지원 김지은 김지호 김지환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창우 김철순 김춘우 김태민 김태수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은 김한민 김한솔 김현령 김현식 김현식 김현영 김현화 김형배 김혜경 김혜옥 김혜완 김혜진 김홍수 김희정 김희창 나기환 나선영 나정숙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영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명 문건화 문경애 문경희 문병준 문상빈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송이 문숙자 문예진 문은영 문지의 문희정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길자 박남진 박누리 박란희 박명숙 박미주 박민경 박민영 박보건 박상빈 박상일 박상호 박상희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에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영 박세호 박소영 박수진 박승원 박승하 박시백 박시형 박재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일 박영환 박완선 박완신 박용대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이향 박임당 박장근 박장근 박장용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화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찬연 박천수 박하순 박현희 박혜수 박효경 박홍석 반영신 방봉순 방정순 방지원 배경원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배치녀 백미리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윤희 백재선 서기현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정용 서주형 서찬욱 석유원 석지운 선우대룡 선혜란 성서연 성정현 성장기 소현미 손동각 손병갑 손석철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자경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무림 송미영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정규 송중호 송준섭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유경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신화정 신희숙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규 안경모 안경희 안남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영춘 안정원 안중녀 안중선 안향미 안희옥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문근 양민순 양정화 양현준 양혜영 어수진 엄재균 연수진 연호준 예혜연 오미영 오민섭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미 오원주 오은영 오장환 오정자 오정희 오종희 오지은 오현숙 옥생 옥영신 우인숙 원명재 원성현 위순월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성민 유영순 유윤영 유지영 유창재 유현자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명순 윤미라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현숙 윤호진 윤희 이강수 이간학 이간호 이간희 이경재 이경아 이경옥 이경은 이경운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군자 이근희 이금옥 이금주 이금희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난경 이동진 이두혁 이라라 이리나 이명화 이미경 이미나 이미리엄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민숙 이병준 이비함 이상림 이상용 이상준 이서운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선희 이성연 이성호 이소정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순용 이순훈 이일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우경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옥 이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윤지 이은숙 이은애 이은정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란 이정민 이정숙 이정실 이정옥 이정은 이정화 이정희 이계선 이계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숙 이종실 이종운 이종현 이종현 이주 오 이주옥 이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창열 이충희 이태곤 이학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우 이현옥 이현진 이형숙 이호연 이호임 이호중 이효정 이효진 임경희 임나미 임동근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세연 임원택 임유청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종익 임주현 임지영 임재원 임향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은경 장정아 장정환 장제형 장준호 장춘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영록 전옥 전윤경 전은주 전준규 전형진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미란 정상엽 정상옥 정선에 정선옥 정성락 정성룡 정성철 정소영 정송이 정승희 정아성 정연영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용균 정용일 정용화 정용훈 정우중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은영 정이상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의 정종권 정중현 정중화 정중훈 정지영 정지혜 정진아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태원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혜림 정혜신 정혜영 정호준 정효란 정훈 정희진 조경애 조규남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성진 조소현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재범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현철 지덕근 지세진 지영자 지혜롬 진수미 진영옥 진태원 차순정 차한비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최귀선 최귀숙 최기상 최동호 최문아 최미란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안순 최영식 최영은 최영민 최영자 최영하 최우영 최윤정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희 최주형 최지영 최진석 최진영 최찬일 최천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인숙 하인혜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소아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현덕 허효재 홍도순 홍명희 홍석현 홍성원 홍성호 홍세미 홍순민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 황보솔 황성윤 황승미 황연국 황인현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지엠에디테크 강귀화 강수혜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꿈꾸는인생 나눔봉사단 남완승 박경선 박영란 박종필 박형훈 반고운 서금석 서유리 신동길 신희숙 안성희 안예스터 오선실 오선에 온앤오프 김효진 유동훈 윤지형 이승연 이윤심 이한나 이한진 이현숙 이효상 정세영 정혜주 착한물위드고 최용근 최하나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02월 • 가을 미니 폴라로이드 필름 /책방이음 쌀 20kg /한살림 쌀 90kg /승인교회 쌀 20kg
- 03월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비비크림 31개 /핏제리아ox한국관광공사 엄청 긴 피자 2판 /한살림 쌀 90kg
- 04월 • 승인교회 쌀 20kg /김경란 두유 72개, 보리빵 한 상자 /소소서원 원두 /한살림 쌀 30kg
- 05월 • 김수역 비타500 2상자 /박선봉 바나나우유 20개, 비타500 1상자 /박혜수 미술 도구 /한살림 쌀 60kg /승인교회 쌀 20kg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lc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사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너네는 죽지 말고 꼭 성공해라.”

뒤에 가던 소년도 무서워서 영영 울었다. 소년들의 나이 고작 열셋이었다. 죽을힘을 다해 헤엄치던 소년이 작은 섬마을로 떠밀려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던 어민들이 있었다. 포기하고 돌아간 소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탈출에 성공한 소년은 어민들에게 붙잡혀 1년 동안 굴양식에 부려졌다. 수십 년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소년들은 선감학원의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평생 국가의 추격으로부터 달아나야 했던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 일생일대의 대결을 시작했다.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비마이너 기획. 하금철, 홍은전, 강혜민, 김유미 글.

오월의 봄. 2019.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